

저자 王好古
국역 구현희
해제 구현희

국역 醫壘元戎
【一】



ISBN 978-89-5970-604-4(PDF)
ISBN 978-89-5970-603-7(세트)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의루원응》의 원서 醫壘元戎 原序.	1.1
상한의 근원 傷寒之源	1.2
내상론 內傷論	1.3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1.4
태양증 六陽證	1.5
†	1.5.1
중경계지탕 仲景桂枝湯.	1.5.1.1
소건중탕 小建中湯.	1.5.1.2
금궤소건중탕 金匱小建中湯.	1.5.1.3
금궤황기건중탕 金匱黃耆建中湯.	1.5.1.4
금궤황기계지오물탕 金匱黃耆桂枝五物湯.	1.5.1.5
금궤계지가용골모려탕 金匱桂枝加龍骨牡蠣湯.	1.5.1.6

천웅산 天雄散.	1.5.1.7
이간건중탕 易簡建中湯.	1.5.1.8
시호계지탕 柴胡桂枝湯	1.5.1.9
계지인삼탕 桂枝人參湯.	1.5.1.10
계지, 부자. 계지를 제거하고 백출을 더하여서 달인 탕. 桂枝、附子, 去桂加白朮湯.	1.5.1.11
계지작약탕 桂枝芍藥湯.	1.5.1.12
계지가대황탕 桂枝加大黃湯.	1.5.1.13
왕조봉(王朝奉) 계지백호 문답 王朝奉桂枝白虎問答	1.5.2
계지의 처방례 桂枝例	1.5.3
활인양단탕 活人陽旦湯.	1.5.3.1
황기건중탕 黃耆建中湯.	1.5.3.2
당귀건중탕 當歸建中湯.	1.5.3.3
대건중탕 大建中湯.	1.5.3.4
계지가갈근탕 桂枝加葛根湯.	1.5.3.5
계지가후박행인탕 桂枝加厚朴杏仁湯.	1.5.3.6
계지가부자탕 桂枝加附子湯.	1.5.3.7
계지거계가백출복령탕 桂枝去桂加白朮茯苓湯.	1.5.3.8

계지가작약탕 桂枝加芍藥湯.	1.5.3.9
계지거작약가부자탕 桂枝去芍藥加附子湯.	1.5.3.10
계지감초탕 桂枝甘草湯.	1.5.3.11
계지백출감초탕 桂枝白朮甘草湯.	1.5.3.12
복령계지감초대조탕 茯苓桂枝甘草大棗湯.	1.5.3.13
복령계지생강감초탕 茯苓桂枝生薑甘草湯.	1.5.3.14
계지가계탕 桂枝加桂湯.	1.5.3.15
계지거작약가측구모려옹골구역탕 桂枝去芍藥加蜀葵牡蠣龍骨救逆湯.	1.5.3.16
계지감초옹골모려탕 桂枝甘草龍骨牡蠣湯.	1.5.3.17
시호계지감초탕 柴胡桂枝甘草湯.	1.5.3.18
활인음단탕 活人陰旦湯.	1.5.3.19
활인해기탕 活人解肌湯.	1.5.3.20
중경마황탕 仲景麻黃湯.	1.5.3.21
중경계지각반탕 仲景桂枝各半湯.	1.5.3.22
계지이마황일탕 桂枝二麻黃一湯.	1.5.3.23
계지이월비일탕 桂枝二越婢一湯.	1.5.3.24
대청룡탕 大靑龍湯.	1.5.3.25

소청룡탕 小青龍湯.	1.5.3.26
중경의 잡방 仲景雜方	1.5.3.27
또 다른 처방. 又方.	1.5.3.28
중경마황승마탕 仲景麻黃升麻湯.	1.5.3.29
폐위(肺痿)의 근원 肺痿之源	1.5.4
중경마황행인감초석고탕 仲景麻黃杏仁甘草石膏湯.	1.5.4.1
마황부자세신탕 麻黃附子細辛湯.	1.5.4.2
마황연교적소두탕 麻黃連翹赤小豆湯.	1.5.4.3
마황부자감초탕 麻黃附子甘草湯.	1.5.4.4
이간행자탕 易簡杏子湯.	1.5.4.5
중경마황탕 처방예 仲景麻黃湯例	1.5.5
중경마황행인의이인탕 仲景麻黃杏仁薏苡仁湯.	1.5.5.1
중경율무인부자탕 仲景薏苡仁附子湯.	1.5.5.2
활인마황갈근충시탕 活人麻黃葛根葱豉湯.	1.5.5.3
활인지모마황탕 活人知母麻黃湯.	1.5.5.4
역로(易老)의 해리법 易老解利法.	1.5.5.5
마황순주탕 麻黃醇酒湯.	1.5.5.6
또 다른 처방. 一法.	1.5.5.7

월비탕 越婢湯.	1.5.5.8
통정산 通頂散.	1.5.5.9
활인독활산 活人獨活散.	1.5.5.10
활인패독산 活人敗毒散.	1.5.5.11
역로대강활탕 易老大羌活湯.	1.5.5.12
천궁과 세신의 예 芎辛例	1.5.6
궁신탕 芎辛湯.	1.5.6.1
이간궁신탕 易簡芎辛湯.	1.5.6.2
백룡환 白龍丸.	1.5.6.3
발운산 撥雲散.	1.5.6.4
해장법백출탕 海藏法白朮湯.	1.5.6.5
신술탕 神朮湯.	1.5.6.6
황기탕 黃耆湯.	1.5.6.7
황기감초탕 黃耆甘草湯.	1.5.6.8
활인방풍모려백출탕 活人防風牡蠣白朮湯.	1.5.6.9
풍론 風論	1.5.7
중경소속명탕 仲景小續命湯.	1.5.7.1
마황속명탕 麻黃續命湯.	1.5.7.2

계지속명탕 桂枝續命湯.	1.5.7.3
백호속명탕 白虎續命湯.	1.5.7.4
갈근속명탕 葛根續命湯.	1.5.7.5
부자속명탕 附子續命湯.	1.5.7.6
강활연교속명탕 羌活連翹續命湯.	1.5.7.7
독활속명탕 獨活續命湯.	1.5.7.8
백화속명탕 白華續命湯.	1.5.7.9
대속명탕 大續命湯.	1.5.7.10
소속명탕 小續命湯.	1.5.7.11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醫壘元戎 原序.

《의루원용》의 원서

革車千乘, 帶甲十萬, 籌策沈機, 神鬼猜泣, 奇正萬全, 歷古如是. 況良醫之用藥, 獨不若臨陣之用兵乎. 奈何世人以平昔鹵莽之浮學, 應倉卒無窮之疾變, 其不眩駭顛仆者寡矣. 況患固多藏于細微, 而發于人之所忽, 由輕蹈危, 療之求當, 苟無妙算深謀成法以統之, 則倒戈敗績之不暇, 尙何勝之可圖哉. 則前日門類品目之定, 盡計不及之也. 予自河南與諸友將弟兵, 日從事于患難之場, 隨病察脉, 逐脈定方, 開之、效之、薄之、發之, 以盡其宜, 吐之、¹神¹之、汗之、下之, 以極其當. 攻守不常, 出沒無定, 大綱小紀, 經緯悉陳, 本數末度, 條理具設前乎. 此古人之所隱秘深藏或不盡意者, 不啻胸中自有十萬精銳, 如太阿之在匣中, 其輝未嘗耀于外, 一旦撒而揮之, 有以恐人之耳目, 特入陣之奇鋒, 七擒之利刃, 其敵可却, 其勝可決, 而其安可圖, 如此而後已, 故曰《醫壘元戎》云.

丁酉九月二十有九日王好古書.

천 대의 전차와 십만의 갑옷 입은 병사를 거느리고, 깊이 있는 계책을 세우며, 귀신도 두려워할 만큼 신묘한 전략으로, 정공과 기습을 완벽하게 구사하니, 예로부터 이와 같았다. 하물며 훌륭한 의사가 약을 쓰는 것이 어찌 전장에서 병사를 쓰는 것만 못하겠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평소

의 알팍한 학문으로 갑작스럽고 무궁한 병의 변화에 대응하니, 어지럽고 놀라 넘어지지 않는 자가 적을 것이다. 게다가 환자의 병은 대개 미세한 곳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곳에서 발병하니, 가벼이 위험을 범하고 치료하여 적절함을 구하려 해도, 만약 묘한 계산과 깊은 계략으로 이루어진 법도로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패배를 면치 못하여 승리를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 정한 문류와 품목으로는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남(河南)에서 여러 친구, 동생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며 날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병에 따라 증상을 살피고, 맥을 짚어 처방을 정하며, 열어주고, 효과를 보고, 덜어내고, 발산시키는 등 그 마땅함을 다하였으며, 토하게 하고, 보해 주고, 땀을 내게 하고, 설사시키는 등 그 적절함을 극대화하였다. 공격과 방어가 일정치 않고, 출몰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큰 줄기와 작은 기록, 경위를 모두 펼쳐 놓고, 근본 수와 말단의 정도, 조리를 모두 갖추어 놓았다. 이는 옛 사람들이 숨기고 깊이 간직하거나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것으로, 가슴 속에 십만의 정예병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명검인 태아검(太阿劍)²이 칼집 속에 있어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날 꺼내어 휘두르면 사람들의 귀와 눈을 놀라게 하는 것과 같다. 특히 전장에 들어가는 기묘한 칼끝이요, 일곱 번 포로를 잡을 수 있는 예리한 칼날이니, 그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으며, 그 안전함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후에야 비로소 《의루원웅(醫壘元戎)》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정유년 9월 29일 왕호고(王好古)가 쓰다.

1. 神 補 ※문맥상

2. 태아검(太阿劍) : 태아검(太阿劍)은 중국 고대의 명검으로, 여기서는
의술의 탁월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傷寒之源

상한의 근원

帝曰：人傷于寒而傳爲熱，何也？歧伯曰：夫寒盛則生熱也。寒氣外凝內鬱之理，腠理堅緻，玄府閉緻，則氣不宜通，濕氣內結，中外相薄，寒盛熱生，故人傷于寒轉而爲熱。汗之而愈，則外凝內鬱之理可知，斯乃新病數日者也。今風寒客于人，使人毫毛畢直，皮膚閉而爲熱，當是之時，可汗而發也。海藏云：傷寒，冬傷于寒也，邪氣內藏，至春夏而發爲熱病，元受邪氣伏藏，遇春夏風寒所傷，外邪喚出內邪也。有有汗者，有無汗者，所以有傷風傷寒之異也。亦有先傷寒而後傷風者，亦有先傷風而後傷寒者，亦有先傷寒而重感寒者，亦有先傷風而重感風者，此四者，汗有多寡，亦有止作，亦有常汗而不止者，有全無汗者。先證重後傷輕，則顯重者，先證輕後傷重，則亦顯重者。當以脈謹察之，不可忽也。利害天壤，死生係焉。有傷于陽者，風雨寒暑是也，有傷于陰者，飲食居處陰陽喜怒是也，其變又有不可深數者。元感風寒與新傷各合而變，有有形無形內外之異，所以治之，當從其變，而藥不一也，輕重寒暑在其中矣。歧伯曰：平旦人氣生，日中而陽氣降，日西而陽氣已虛，氣門乃閉，是故暮而收拒，無擾筋骨，無見霧露，反此三時，形乃困薄。扁鵲：脈一呼一吸皆四至而瀉者，邪中霧露之氣也。仲景

曰：清邪中於上焦.又曰：霜降已後, 春分已前, 中霧露者皆爲傷寒也.又曰：清邪中於上焦, 濁邪中於下焦, 與飲冷同傷也. [此一條議論在陰證論神朮湯後霧露條下.]

황제(黃帝)가 말하길: "사람이 추위에 상하여 열병으로 변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기백(岐伯)이 답하길: "추위가 극심하면 열이 생깁니다. 추운 기운이 밖에서 응결되고 안에서 울체되는 이치 때문입니다. 주리(腠理)가 단단해지고 현부(玄府)가 닫히면 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습기(濕氣)가 내부에 맴돌아 안팎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추위가 심해져 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땀을 내면 낫는 것은 외부 응결과 내부 울체의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병에 걸린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 풍한(風寒)이 사람에게 침입하여 털이 곤두서고 피부가 닫혀 열이 발생하면, 이때 땀을 내어 발산시킬 수 있습니다." 해장(海藏)이 말하길: "상한은 겨울에 추위에 상한 것으로, 사기(邪氣)가 내부에 잠복해 있다가 봄 여름에 열병으로 발병하는 것입니다. 원래 받은 사기가 잠복해 있다가 봄 여름의 풍한에 다시 상하면 외부의 사기가 내부의 사기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땀이 나는 경우도 있고 땀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상풍(傷風)과 상한(傷寒)의 차이입니다. 또한 먼저 한(寒)에 상하고 나중에 풍(風)에 상하는 경우, 먼저 풍에 상하고 나중에 한에 상하는 경우, 먼저 한에 상하고 다시 한에 상하는 경우, 먼저 풍에 상하고 다시 풍에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땀의 양에 차이가 있고, 땀이 멈췄다 나

기도 하며, 계속 땀이 나서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혀 땀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증상이 심하고 나중에 상한 것이 가벼우면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먼저 증상이 가볍고 나중에 상한 것이 심하면 역시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이로움과 해로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며,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양(陽)에 상하는 것은 바람, 비, 추위, 더위이고, 음(陰)에 상하는 것은 음식, 거처, 음양의 변화, 희노(喜怒哀)입니다. 그 변화는 또한 깊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풍한에 감염된 것과 새로 상한 것이 각각 합쳐져 변화하며, 유형무형과 내외의 차이가 있어 치료할 때는 그 화에 따라야 하므로 약이 한 가지가 아니며, 경증과 한열이 그 안에 있습니다."기백이 말하길: "새벽에는 사람의 기운이 생겨나고, 정오에는 양기가 내려가며, 해 질 무렵에는 양기가 이미 허해지고 기의 문이 닫히므로, 저녁에는 거두어들이고 거부하여 근골을 어지럽히지 말고 안개와 이슬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시기를 거스르면 몸이 피곤하고 약해집니다."편작이 말하길: "맥이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모두 네 번 뛰면서 거칠다면, 안개와 이슬의 사기에 감염된 것입니다."중경(仲景)이 말하길: "맑은 사기는 상초를 침범합니다." 또 말하길: "상강(霜降) 이후 춘분 이전에 안개와 이슬에 감염되면 모두 상한이 됩니다." 또 말하길: "맑은 사기는 상초를 침범하고, 탁한 사기는 하초를 침범하며, 찬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은 상해를 입습니다." [이 한 조목의 의론은 《상한론(傷寒論)·음증론(陰證論)·신술탕(神朮湯)》 뒤 무로(霧露) 조목 아래에 있다.]

且傷風者惡風, 傷雨者惡濕, 傷寒者發熱惡寒, 傷暑者心熱畏日, 此皆傷于陽者也. 飲食不節者, 或饑或飽或冷或硬. 居處不時, 或塞或通或勞或逸. 陰陽太過者, 隱相易之形狀, 或一或二. 喜怒不常者, 須心腹之逆滿, 或隔或痞, 此皆傷于陰者也. 舊有冬伏之寒邪在經, 春夏之復傷而作, 傷于陽者則邪氣外併, 傷于陰者則邪氣內併, 新傷引出舊傷也. 或四季之中有一日兩傷, 有一時并傷, 則內外相合, 其變至多矣. 或陽證, 或陰證, 或陰毒, 或襍證, 俱在其中. 先外傷後內傷, 外就內而合病. 若頭痛身疼輕而內傷重者, 當先治內之重者, 後治外之輕者, 先內傷後外傷, 內就外而合病. 若心腹痞悶輕而外傷重者, 當先治外之重者, 後治內之輕者. 然亦有內外俱輕, 亦有內外俱重, 當各從其所, 可先者而先治, 從其所并治者而并治, 次第不失, 萬舉萬全矣. 治內兼外者, 不可寒下, 若下則陷經邪于內, 治外兼內者, 不可熱發, 若發則益中熱于外. 二者皆逆, 豈不危乎. 藥之寒熱可輕用哉.

또한 바람에 상한 자는 바람을 싫어하고, 비에 상한 자는 습기를 싫어하며, 한기에 상한 자는 열이 나고 추위를 싫어하고, 더위에 상한 자는 가슴이 뜨겁고 햇빛을 두려워하니, 이는 모두 양(陽)에 상한 것이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 자는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차갑거나 딱딱한 것을 먹게 되고, 거처를 때에 맞게 하지 못한 자는 막히거나 통하거나 수고롭거나

안일하게 된다. 음양이 지나친 자는 은밀히 서로 바뀌는 형상이 있어 하나 또는 둘이 된다. 희노(喜怒)가 일정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복(心腹)이 거슬리고 가득 차며, 막히거나 답답해지니 이는 모두 음(陰)에 상한 것이다. 예전에 겨울에 잠복해 있던 한사(寒邪)가 경맥에 있다가 봄여름에 다시 상하여 발작하는데, 양에 상한 자는 사기(邪氣)가 밖으로 합쳐지고 음에 상한 자는 사기가 안으로 합쳐져 새로운 상함이 옛 상함을 끌어내는 것이다. 혹은 사계절 중에 하루에 두 번 상하거나 한 때에 함께 상하면 안팎이 서로 합쳐져 그 변화가 매우 많아진다. 혹은 양증(陽證)이 되거나 음증(陰證)이 되거나 음독(陰毒)이 되거나 잡증(雜證)이 되어 모두 그 안에 있게 된다. 먼저 외상(外傷)을 입고 후에 내상(內傷)을 입으면 외상이 내상에 합쳐져 병이 된다. 만약 두통과 몸살이 가볍고 내상이 중한 자는 마땅히 먼저 내상의 중한 것을 치료하고 후에 외상의 가벼운 것을 치료해야 한다. 먼저 내상을 입고 후에 외상을 입으면 내상이 외상에 합쳐져 병이 된다. 만약 심복(心腹)이 답답하고 막힘이 가볍고 외상이 중한 자는 마땅히 먼저 외상의 중한 것을 치료하고 후에 내상의 가벼운 것을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내외가 모두 가벼운 경우도 있고, 내외가 모두 중한 경우도 있으니, 마땅히 각각 그 상황을 따라 먼저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치료하고,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치료하되, 순서를 잃지 않으면 만사가 만전할 것이다. 내상을 치료하면서 외상을 겸하는 자는 한랭한 약으로 설사시켜서는 안 되니, 만약 설사시키면 경맥의 사기(邪氣)를 안으로 빠뜨리게 된다. 외상을 치료하면서 내상을 겸하는 자는 열을 내서 발

산시켜서는 안 되니, 만약 발산시키면 중열(中熱)을 밖으로 더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역(逆)이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약의 한열을 어
찌 가볍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內傷論

내상론

內傷, 先傷胃, 或曰上熱下冷, 傷食病也, 手足四支微冷, 或四順兩脇¹熱甚, 此少陽也. 中州先傷, 少陽反病者, 何也. 答曰, 內傷者, 先傷胃足陽明也. 經云, 脾胃相通, 五穀消, 是脾與胃陽戊陰己, 共爲腐熱, 今既胃傷連及脾也, 兩脇雖爲少陽之地, 章門二穴所處, 卽脾之膜也, 脇安得不熱. 況從內而至外者, 先少陽, 內傷中州, 而少陽亦病也. 假令內傷, 有巴豆及諸濕熱之屬, 又有備急丸寒熱各半之例, 又有枳實、大黃、牽牛之屬, 亦有神麴、麥蘖、砂仁及三稜、廣茂之例, 其藥不一, 又有玄明丸、煮黃丸種種不一, 內傷之疾, 豈一藥所能畢哉. 今人無論證之寒熱, 人之虛實, 便之要結, 只一藥而主之, 寒熱安得不差. 所以人病者, 虛勞殘疾無所不有也. 然內傷脾胃, 與少陽俱病, 此陽病也. 若內傷陰病, 當以理中, 而復脉虛而細, 少陰病也. 脉虛而弦, 厥陰病也. 脉弱而虛, 太陰本病也. [三陰之藥具見陰證論. 潔古老人詳說可下之藥於前, 今又詳說可用之藥於後, 并見陰證論.]

내상(內傷)은 먼저 위를 손상시키며, 혹은 상부는 열이 나고 하부는 차가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음식으로 인한 병이다. 손발과 사지가 약간 차가워지거나, 혹은 사지와 양쪽 옆구리에 열이 심하게 나는 것은 소양

(少陽)의 증상이다. 중주(中州)가 먼저 손상되고 소양(少陽)이 반대로 병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답하여 말하기를, 내상은 먼저 위(胃)인 족양명(足陽明)을 손상시킨다. 《내경》에 이르기를, '비(脾)와 위(胃)가 서로 통하여 오곡을 소화시킨다'고 하였으니, 이는 비(脾)와 위(胃)의 양(陽)인 무(戊)와 음(陰)인 기(己)²가 함께 부열(腐熱)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제 이미 위가 손상되면 비(脾)에까지 연달아 미치게 된다. 양쪽 옆구리는 비록 소양(少陽)의 영역이지만, 장문(章門) 두 혈(穴)이 있는 곳이 바로 비(脾)의 막(膜)이니, 옆구리가 어찌 열이 나지 않겠는가. 더구나 안에서 밖으로 미치는 것은 먼저 소양(少陽)을 거치므로, 내상으로 중주(中州)가 손상되면 소양(少陽) 또한 병이 드는 것이다. 가령 내상에는 파두와 여러 습열의 약물이 있고, 또 비급환(備急丸)과 같이 한열을 반반씩 섞은 예도 있으며, 또한 지실, 대황, 견우자 등의 약물도 있다. 또한 신곡, 맥아, 사인, 삼릉, 광모(廣茂) 등의 예도 있어 그 약물이 한 가지가 아니다. 또한 현명환(玄明丸), 자황환(煮黃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내상의 질병을 어찌 한 가지 약으로 모두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람들은 증상의 한열이나 사람의 허실, 대변의 굳고 묽음을 따지지 않고 단지 한 가지 약으로 주관하니, 한열이 어찌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병이 든 사람은 허로와 장애가 모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상으로 비위(脾胃)가 손상되고 소양(少陽)이 함께 병들면 이는 양병(陽病)이다. 만약 내상(內傷)이 음병(陰病)이라면 마땅히 이충탕(理中湯)을 써야 하며, 또한 맥이 허(虛)하고 가는 것은 소음병(少陰病)이다. 맥이 허(虛)하고 현(弦)한 것은 꺾음병

(厥陰病)이다. 맥이 약(弱)하고 허(虛)한 것은 태음의 본병(本病)이다.

[삼음(三陰)의 약은 음증론(陰證論)에 자세히 나와 있다. 결코노인(潔古老人)이 앞에서 하(下) 할 수 있는 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지금 또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 뒤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모두 <음증론>에서 볼 수 있다.]

有無病能食而傷者, 有有病不能食而傷者, 不可不知也. 內傷心腹痛大小便不通, 服食藥心腹微快, 大小便通, 餘邪傳入于標, 頭痛發熱, 後治其標, 標藥合隨三陽經用, 輕治之即愈. 此由內而外, 先治其內, 後調其外, 此其法也. 以其飲食過多, 傷之太過, 故邪熱之氣, 傳入于標, 內既以定, 外又安得, 爲之全愈. 若冬伏寒之氣在經, 內傷喚出冬伏之邪, 先內傷, 次標病, 亦如前法, 先治內, 後治外, 此內重而外輕, 故如是也. 若外重而內輕, 先治其外, 後治其內可也. 以上止是內傷太過, 非積寒傷冷也. 若積寒傷冷, 脉已從陰, 雖有標病, 不須治標, 獨治內也. 內三陰之經, 所用皆溫劑, 內既得溫, 標病不發而自愈, 何以然. 發表之藥不遠熱也. 三陰溫雖, 非發表之藥, 亦不遠熱也. 內既以溫, 標病從內而變, 亦從此而解矣. 若錯汗之, 三焦之氣絕而成太陰也. 此溫中之劑, 雖獨治內, 亦兼治外也, 不可不知. 陰證治本不治標, 標本俱得, 治標不治本, 標本俱失. 已有冬伏寒邪, 若內傷喚出舊邪, 使見太陽證也. 若無冬伏寒邪者, 止是內傷發出不和邪氣, 多顯少陽證也. 兩脇熱甚, 頭額痛, 手足冷如厥逆狀, 熱甚然後手足溫或熱, 雖手指末亦有微冷者. [王朝奉集仲景活人例.]

병이 없어도 음식을 먹어 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병이 있어 음식을 먹지 못해 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내상으로 인해 심복통이 있고 대소변이 통하지 않을 때, 약을 복용하면 심복이 약간 편안해지고 대소변이 통하게 되지만, 남은 사기(邪氣)가 표(標)로 전해져 두통과 발열이 생긴다. 이후 그 표증(標證)을 치료할 때는 삼양경(三陽經)에 따라 표약(標藥)을 사용하여 가볍게 치료하면 곧 낫는다. 이는 내부에서 외부로 전해진 것이므로, 먼저 내부를 치료하고 나중에 외부를 조절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음식을 과다 섭취하여 지나치게 상했기 때문에 사열(邪熱)의 기가 표로 전해진 것이니, 내부가 이미 안정되면 외부도 편안해져 완전히 낫게 된다. 만약 겨울에 잠복한 한기(寒氣)가 경맥에 있을 때 내상으로 인해 겨울에 잠복했던 사기(邪氣)를 불러일으키면, 먼저 내상이 생기고 다음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앞의 방법과 같이 먼저 내부를 치료하고 나중에 외부를 치료한다. 이는 내부가 중하고 외부가 가벼우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만약 외부가 중하고 내부가 가벼우면 먼저 외부를 치료하고 나중에 내부를 치료해도 된다. 이상은 단지 내상이 지나친 경우일 뿐, 한기가 쌓이고 냉기에 상했을 때에는 아니다. 만약 한기가 쌓이고 냉기에 상했다면 맥이 이미 음(陰)을 따르므로, 비록 표병이 있더라도 표를 치료할 필요 없이 오직 내부만 치료한다. 내부의 삼음경에는 모두 온제(溫劑)를 사용하는데, 내부가 이미 따뜻해지면 표병이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낫는다. 어째서 그런가? 발표(發表)하는 약은 열을 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음(三陰)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 비록 발표하는

약은 아니지만, 역시 열을 멀리하지 않는다. 내부가 이미 따뜻해지면 표병이 내부로부터 변화하여 또한 이로부터 풀리게 된다. 만약 잘못하여 땀을 내면 삼초의 기가 끊어져 태음(太陰)이 된다. 이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제는 비록 오직 내부만 치료하지만 또한 외부도 겸하여 치료하니, 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음증(陰證)에 본(本)을 치료하고 표(標)를 치료하지 않으면 표본(標本)³이 모두 얻어지지만, 표를 치료하고 본을 치료하지 않으면 표본을 모두 잃게 된다. 이미 겨울에 잠복하고 있던 한사가 있는데, 만약 내상으로 인해 오래된 사기(邪氣)를 불러일으키면 태양증(太陽證)이 나타나게 된다. 만약 겨울에 잠복한 한사가 없는 자는 단지 내상으로 인해 조화롭지 않은 사기가 발생하여 대부분 소양증(少陽證)이 나타난다. 양 옆구리의 열이 심하고, 머리와 이마가 아프며, 손발이 싸늘하여 저린 상태와 같다가 열이 심해진 후에 손발이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지는데, 손가락 끝에도 약간 차가운 곳이 있기는 하다. [왕조봉(王朝奉)⁴이 장중경(張仲景)의 〈활인예(活人例)〉를 정리한 것이다.]

1. 四順兩脇 ⇨ 四肢兩脇 ※문맥상 ←

2. 양(陽)인 무(戊)와 음(陰)인 기(己) : 무(戊)와 기(己)는 각각 비(脾)와 위(胃)의 오행 속성을 나타내는 천간(天干)이다. ←

3. 표본(標本) : 표(標)와 본(本): 표는 질병의 표면적 증상을, 본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가리킨다. ←

4. 왕조봉(王朝奉) : 왕황(王貺). 《전생지미방(全生指迷方)》을 저술하였다. ←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大法, 春宜吐, 春夏宜發汗, 秋宜下. 凡用發汗及吐下湯, 皆中病便止, 不必盡劑也. 少陰病, 脉微不可發汗, 亡陽故也, 宜附子湯. 陽已虛, 盡自弱瀆者, 復不可下之. 宜小柴胡湯. 動氣在左、在右、在上、在下, 并不可發汗, 宜柴胡桂枝湯. 少陰病, 脉細沈數, 病在裏, 不可發汗, 宜當歸四逆湯. 少陽不可發汗, 宜小柴胡湯. 咽中閉塞, 咽喉乾燥, 亡血、衄家、淋家、瘡家, 不可發汗. 已上六證并小柴胡湯. 下利清穀不可發汗, 宜理中湯、四逆之類. 若四逆厥及虛家皆不可吐, 厥宜當歸四逆湯, 虛宜附子湯, 有熱人可黃耆人參建中湯. 少陰病, 隔上寒, 乾嘔, 不可吐, 宜小半夏加橘皮湯、溫中丸. 咽中有動氣不可下, 咽中閉塞不可下, 宜烏扇湯. 諸外實者不可下, 諸四逆厥者不可下, 虛家亦然. 厥宜當歸四逆湯, 虛宜附子湯, 有熱入黃耆人參建中湯. 本虛攻其熱必噦, 小柴胡湯. 脉浮而緊, 法當身痛, 宜以汗解. 假令尺中遲者, 不可發汗, 榮氣不足, 血少故也, 宜小柴胡湯.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대법(大法)은 봄에는 토법을 쓰고, 봄과 여름에는 발한법을 쓰며, 가을에는 하법을 쓰는 것이 좋다. 무릇 발한법과 토법, 하법의 탕약을 쓸 때는 모두 병증에 맞으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반드시 약을 다 먹을 필요는 없다. 소음병(少陰病)에 맥박이 미약하면 발한법을 쓸 수 없는데 이는 양기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부자탕(附子湯)을 쓰는 것이 좋다. 양기가 이미 허약해져 맥이 완전히 약하고 거칠어진 경우에는 다시 하법을 쓸 수 없다. 이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쓰는 것이 좋다. 기의 동요가 좌측, 우측, 상부, 하부에 있을 때는 모두 발한법을 쓸 수 없으며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쓰는 것이 좋다. 소음병에 맥이 가늘고 침침하며 빠른 경우 병이 안에 있으면 발한법을 쓸 수 없으며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쓰는 것이 좋다. 소양병에는 발한법을 쓸 수 없으며 소시호탕을 쓰는 것이 좋다. 목구멍이 막히고 인후가 건조한 경우, 실혈(失血)한 사람, 코피를 흘린 사람, 소변 장애가 있는 사람, 종기가 있는 사람은 발한법을 쓸 수 없다. 이상의 여섯 가지 증상에는 모두 소시호탕을 쓴다. 설사를 하여 맑은 곡물이 나올 때는 발한법을 쓸 수 없으며 이중탕(理中湯)이나 사역탕(四逆湯) 류를 쓰는 것이 좋다. 만약 사지가 차고 맥이 없는 경우와 허약한 사람은 모두 토법을 쓸 수 없다. 사지가 차고 맥이 없는 경우에는 당귀사역탕을 쓰고 허약한 경우에는 부자탕을 쓰며 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황기인삼건중탕(黃耆人參建中湯)을 쓸 수 있다. 소음병에 횡격막 위에 한기가 있어 마른 구토를 할 때는 토법을 쓸 수 없으며 소반하가귤피탕(小半夏加橘皮湯)이나 온중환(溫中丸)을 쓰는 것이 좋다. 목구멍에 동기가 있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으면 하법을 쓸 수 없고 목구멍이 막혔을 때도 하법을 쓸 수 없으며 오선탕(烏扇湯)을 쓰는 것이 좋다. 모든 외부가 실증인 경우에는 하법을 쓸 수 없고 모든 사지가 차고 맥이 없는 경우에도 하법을 쓸 수 없으며 허약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지가 차고 맥이 없는 경우에는 당귀사역탕을 쓰고 허약한 경우에는 부자탕을 쓰며 열이 있는 경우에는 황기인삼건중탕을 쓴다. 본래 허약한데 열을 공격하면 반드시 딸꾹질이 나며 이때는 소시호탕을 쓴다. 맥이 뜨고 긴장되어 있으면 법도에 따라 몸에 통증이 있어야 하니 마땅히 발한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촌관(寸關)에 비해 척부(尺部)의 맥이 느리면 발한법을 쓸 수 없는데 이는 영기(榮氣)가 부족하고 혈액이 적기 때문이다. 이때는 소시호탕을 쓰는 것이 좋다.

脉濡而緊, 濡則衛氣¹微, 緊則榮中寒, 陽微衛中風, 發熱而惡寒, 榮緊衛氣冷, 微嘔心內煩, 此不可汗, 宜小柴胡湯. 脉濡而弱, 不可發汗, 宜小柴胡湯. 脉浮而大, 浮爲氣實, 大爲血虛, 小便當赤而難, 胞中當虛, 今反小便利而大汗出, 法應衛家微, 可與小建中湯, 今反更實, 津液四射, 榮竭血盡, 乾煩而不得眠, 此不可下, 宜與小柴胡湯. 脉浮大應發汗, 宜柴胡桂枝湯, 而反下之, 爲大逆. 脉浮而緊者, 不可下, 宜桂枝麻黃各半湯, 數, 不可下, 宜柴胡桂枝湯, 下之必煩利不止, 宜葛根黃芩黃連湯. 脉濡弱浮數不可下, 宜小柴胡湯. 脉濡弱微瀼, 微則陽氣不足, 中風汗出而反躁煩, 瀼則無血, 厥而且寒, 不可下, 宜桂枝甘草龍骨牡蠣湯. 結胸脉浮大, 不可下, 下之即死, 宜小陷胸湯. 夫陽病多者熱下之則鞭, 宜小柴胡湯. 太陽發汗不徹, 轉屬陽明, 微汗出, 不惡寒, 若太陽證不罷, 下之爲逆, 宜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桂枝麻黃湯.太陽病, 饑外證未解, 不可下, 下之爲逆, 宜桂枝麻黃湯.病致于陽而反下之, 熱入因作結胸, 病發于陰而反下之, 因作痞.病脉浮而緊而復下之, 緊反入裏則作痞.太陽與陽明合病, 喘而胸滿, 不可下, 宜麻黃杏子甘草石膏湯.

맥이 유(濡)하면서 긴(緊)한 경우는, 유(濡)는 양기(陽氣)가 미약한 것이고, 긴(緊)한 것은 영기(榮氣)가 찬 것이다. 양(陽)이 미약하고 위기(衛氣)에 풍사(風邪)가 있으면 발열과 오한이 나타난다. 영기가 긴장되고 위기(衛氣)가 차가우면 약간의 구토와 심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발한시키지 말고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사용해야 한다. 맥이 유(濡)하고 약(弱)하면 발한시키지 말고 소시호탕을 사용해야 한다. 맥이 부(浮)하고 대(大)한 경우는, 부(浮)는 기가 실(實)한 것이고, 대(大)는 혈(血)이 허한 것이다. 소변색이 붉고 배뇨곤란이 있으며 자궁이 허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소변이 잘 나오고 땀이 많이 나므로, 이치상 위기(衛氣)가 허약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실해져서 진액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영기가 고갈되어 혈(血)이 부족해지면 입이 마르고 번열이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때는 하법(下法)을 쓰지 말고 소시호탕을 사용해야 한다. 맥이 부(浮)하고 대(大)하면 발한시켜야 하므로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사용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법을 쓰면 큰 역증(逆證)이 나타난다. 맥이 부(浮)하면서 긴(緊)하면 하법을 쓰지 말고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사용해야 하며, 맥이 삭(數)하면 하법을 쓰지 말고 시호계지탕을 사용해야 한다. 하법을 쓰면 반드시 번열과 설사가 멎지 않으므로 갈근황금 황련탕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葛根黃芩黃連湯)을 사용해야 한다. 맥이 유(濡)하고 약(弱)하면서 부(浮)하고 삭(數)하면 하법을 쓰지 말고 소시호탕을 사용해야 한다. 맥이 유(濡)하고 약(弱)하면서 미(微)하고 삽(澁)한 경우는, 미(微)는 양기가 부족한 것이니 중풍으로 땀이 나면서도 초조하고 번열이 있으며, 삽(澁)은 혈(血)이 부족한 것이니 사지가 차가워지는데, 이때는 하법을 쓰지 말고 계지감초용골모려탕(桂枝甘草龍骨牡蠣湯)을 사용해야 한다. 결흉(結胸)에 맥이 부(浮)하고 대(大)하면 하법을 쓰지 말아야 하며, 하법을 쓰면 곧 사망하므로 소함흉탕(小陷胸湯)을 사용해야 한다. 대개 양병(陽病)이 많은 경우 열이 있는데 하법을 쓰면 굳어지므로 소시호탕을 사용해야 한다. 태양병에 발한시켰으나 땀이 충분히 나지 않아 양명으로 전변되어 약간의 땀이 나고 오한이 없는 경우는, 만약 태양증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하법을 쓰면 역증이 되므로 계지마황탕(桂枝麻黃湯)을 사용해야 한다. 태양병에 외증(外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하법을 쓰지 말아야 하며, 하법을 쓰면 역증이 되므로 계지마황탕을 사용해야 한다. 병이 양(陽)에 이르렀는데 반대로 하법을 쓰면 열이 안으로 들어가 결흉이 되고, 병이 음(陰)에서 발생했는데 반대로 하법을 쓰면 비(痞)가 된다. 병에 맥이 부(浮)하면서 긴(緊)한데 다시 하법을 쓰면, 긴(緊)함이 반대로 안으로 들어가 비(痞)가 된다. 태양과 양명이 합병되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하법을 쓰지 말고 마황행인감초석고탕(麻黃杏仁甘草石膏湯)을 사용해야 한다.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太陽與少陽合病, 心下鞭, 頸項强而眩者, 不可下, 宜小柴胡湯. 四逆厥及虛家皆不可下, 厥宜當歸四逆湯, 虛家宜附子湯. 病欲吐者不可下, 宜小半夏加橘皮湯. 太陰腹痛吐食, 自利腹痛, 下之必胸下結鞭. 厥陰病, 渴, 氣上衝心, 心中熱, 既不欲食, 食則吐蚘, 下之利不止. 少陰病, 飲食入口則吐, 心中溫溫, 欲吐復不能吐, 始得之平旦寒, 脉弘遲者, 此胸中寒實, 不可下也, 宜溫中湯、生薑汁半夏湯. 無陽證强, 大便鞭者, 下之必清穀腹滿, 宜用蜜煎導等法. 傷寒五六日, 不結胸, 腹濡脉虛, 復厥者, 不可下, 此亡血也, 宜當歸四逆湯, 下之即死, 宜四逆加入參湯. 藏結無陽證, 不往來寒熱, 其人反靜, 舌上胎滑者, 不可攻也, [攻謂下也.] 宜用小柴胡湯, 針關元穴. 傷寒嘔多, 雖有陽明證, 不可攻之, 宜小柴胡湯. 陽明病, 身面色赤, 攻之必發熱, 宜調胃承氣湯. 色黃者, 小便不利也, 宜五苓散. 陽明病, 心下鞭滿者, 不可攻之, 宜生薑瀉心湯、半夏瀉心湯. 攻之利不止者死, 宜四逆湯. 不可汗、吐, 一條三法, 利害非輕, 前人多列經後. 大抵醫之失, 只在先藥, 藥之錯則變生. 若汗下不差, 則永無亡陽、生黃、畜血、結胸、痞氣及下利洞泄、協熱利、痙急、虛勞等證生矣. 以其如此, 故錄大禁忌于前, 使醫者當疾之初不犯也.

태양병과 소양병이 합병되어 명치가 단단하고, 목과 어깨가 뻣뻣하며 어지러운 경우에는 설사시켜서는 안 되며,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쓰는 것이 좋다. 사역(四逆)과 곁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허약한 사람 모두 설사시켜서는 안 된다. 곁증에는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이 좋고, 허약한 사람에게는 부자탕(附子湯)이 좋다. 구토하려는 증상이 있는 병에는 설사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시켜서는 안 되며, 소반하가굴피탕(小半夏加橘皮湯)이 좋다. 태음병으로 복통과 음식 토하기, 설사와 복통이 있는 경우 설사시키면 반드시 가슴 아래가 단단하게 뭉친다. 궤음병으로 갈증이 나고 기운이 위로 치솟아 심장을 압박하며, 심장 부위가 뜨겁고, 이미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으며, 먹으면 회충을 토하고, 설사시키면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 소음병으로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면 곧 토하고, 가슴 속이 따뜻하며, 토하고 싶어 도 토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평온했다가 갑자기 한기가 들며, 맥박이 크고 느린 경우는 가슴 속에 한실(寒實)이 있는 것이니 설사시켜서는 안 되며, 온중탕(溫中湯)과 생강즙반하탕(生薑汁半夏湯)이 좋다. 양증(陽證)이 없이 강하고 대변이 단단한 경우 설사시키면 반드시 청곡(淸穀)과 복만(腹滿)이 생기니, 꿀을 꿀여 관장하는 등의 방법을 써야 한다. 상한 5-6일째에 결흉이 없고 배가 부드러우며 맥이 허하고 다시 궤증이 오는 경우에는 설사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혈이 없어진 것이니 당귀사역탕이 좋고, 설사시키면 곧 죽으니 사역가인삼탕(四逆加人參湯)이 좋다. 장부가 막혔으나 양증이 없고, 한열왕래가 없으며, 그 사람이 오히려 조용하고, 혀 위에 설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 [공격은 설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시호탕을 쓰고 관원혈(關元穴)에 침을 놓는 것이 좋다. 상한으로 구토가 많은 경우, 비록 양명증이 있더라도 공격해서는 안 되며, 소시호탕이 좋다. 양명병으로 몸과 얼굴색이 붉은 경우 공격하면 반드시 열이 나니,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이 좋다. 색이 누런 경우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니, 오령산이 좋다. 양명병으로 심하가 단단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하고 꼭 찬 경우에는 공격해서는 안 되며, 생강사심탕(生薑瀉心湯)과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이 좋다. 공격하여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죽으니, 사역탕(四逆湯)이 좋다. 땀을 내게 하거나 토하게 해서 안 되는 경우, 한 조목에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로움과 해로움이 가볍지 않아 전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내경》 뒷편에 열거하였다. 대체로 의사의 실수는 오직 약을 먼저 쓰는 데 있으니, 약을 잘못 쓰면 변화가 생긴다. 만약 땀을 내게 하거나 설사시켜도 차도가 없으면 영원히 양기를 잃거나, 황달이 생기거나, 어혈이 쌓이거나, 가슴이 막히거나, 기가 막히거나, 설사가 멈추지 않거나, 열이 나면서 설사하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허로(虛勞) 등의 증상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기 때문에 큰 금기 사항을 앞에 기록하여 의사들이 병의 초기에 이를 범하지 않게 하였다.

又三忌

또한 세 가지 금기가 있다

時忌, 春夏不宜桂枝, 秋冬不宜麻黃.²

시기에 따른 금기는 다음과 같다. 봄과 여름에는 계지가 적합하지 않고, 가을과 겨울에는 마황이 적합하지 않다.

藥忌, 已汗者不得再發, 已利者不得再泄.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약을 복용할 때의 금기사항으로, 이미 땀을 낸 사람은 다시 땀을 내게해서는 안 되며 이미 설사를 한 사람은 다시 설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病忌, 虛人不宜用涼, 實人不宜用熱, 其所犯之劑, 當從緩而輕.

병을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은 허약한 사람에게는 찬 약을 쓰지 않고, 실증(實證)이 있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약을 쓰지 않는 것이다. 실증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약의 처방은 마땅히 완만하고 가벼운 것을 따라야 한다.

海藏云, 前人說不可汗下吐三法, 多在經後, 讀者往往遺之. 此用藥之大禁, 必不可犯, 今列之篇首, 使人易見爾.

해장(海藏)이 말하기를, "선인들이 말한 '땀을 내고 나서 토하게 하거나 설사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경문 뒤에 있어서 독자들이 흔히 이를 간과한다. 이는 약을 사용할 때의 큰 금기로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를 편의 첫머리에 열거하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한 것 뿐이다."라고 하였다.

1. 衛氣 ⇨ 陽氣 ※상한론_금궤옥함경, 신간왕씨맥경

衛氣 : ※송본상한론

胃氣 ※의방유취 ⇐

2. 계지는 온성(溫性)이 있어 봄과 여름의 더운 계절에는 적합하지 않고, 마황은 강한 발한 작용이 있어 가을과 겨울의 추운 계절에는 적합하지 않

땀을 내서는 안 되고, 토하게 해서도 안 되며, 설사시켜서도 안 된다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다는 의미이다.↩



六¹陽證

태양증²

1. 六 ☰ 太 ※대교본목차 [←](#)

2. 태양증 : 태양증은 상한론(傷寒論)에서 설명하는 육경병(六經病) 중 하나로, 외감 풍한(風寒)이 태양경락을 침범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

†

先足經從湯液, 後手經從雜例.

먼저 족경(足經)은 《탕액본초》을 따르고, 후에 수경(手經)은 여러 잡병 치험례를 따른다.



仲景桂枝湯.

중경계지탕

太陽證, 傷風自汗, 脉浮而緩.

태양병 증상을 치료할 때, 풍사(風邪)에 상하여 저절로 땀이 나고, 맥이 뜨면서 완만하다.

- 桂枝、芍藥、生薑 各一錢半, 甘草、紅棗(去核). [夏加黃芩、知母、石膏、升麻.]
- 계지、작약、생강 각 1.5돈, 감초、홍대추(씨를 제거함). [여름에는 황금、지모、석고、승마를 추가한다.]

爲麤末, 水一盞, 煎至八分, 溫服. 自汗, 小便不數者宜用, 無汗, 小便數, 手足分, 不惡寒, 或膏粱好飲者, 不宜用.

위의 약재들을 거칠게 갈아 물 한 잔을 넣고 8푼이 될 때까지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자한이 있고 소변을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땀이 없고, 소변을 자주보며, 손발이 차면서도 한기를 싫어하지 않거나, 기름진 음식과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小建中湯.

소건중탕

陽脉瀼, 陰脉弦.

양맥이 색(瀼)하고 음맥이 현(弦)한 것을 치료한다.

- 桂 三字, 芍藥 一錢半, 甘草 半錢, 生薑 三片, 紅棗. [擘核後放此.]
- 계피 3자, 작약 1.5돈, 감초 0.5돈, 생강 3조각, 대추 [쪼개어 씨를 제거한 후 넣는다.].

爲麤末, 每服五錢, 生薑三片, 棗一枚, 水一盞半, 煎至八分, 去滓, 下膠飴兩匙, 再煎, 溫化服, 日三夜二. 尺脉尙遲, 再加黃耆末一錢. 後人用治雜病, 改桂枝爲桂, 取其厚薄不言枝.

위의 약재들을 거칠게 갈아서 매회 5돈씩 복용한다. 생강 3조각, 대추 1개, 물 1잔 반을 넣고 8푼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걸러낸다. 물엿을 2숟가락을 넣고 다시 끓여 따뜻하게 녹여 복용하되, 낮에 3번 밤에 2번 복용한다. 척맥이 여전히 느리면 황기 가루 1돈을 더 넣는다. 후대 사람들이 잡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때는 계지를 계(桂)로 바꾸었는데, 이는 두께로 용량을 나타내려고 '지(枝)'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金匱小建中湯.

금궤소건중탕

虛勞急悸衄, 腹中痛, 夢失精, 四肢酸疼, 手足煩熱, 咽乾口燥, 宜此方主之.

허로로 급격히 심장이 뛰고 코피가 나며, 복통, 몽정, 사지의 시큰거림과 통증, 손발의 번열, 인후와 입의 건조한 증상을 치료할 때에는 이 처방으로 주치해야한다.

- 桂枝 四兩(去皮), 芍藥 六兩, 甘草 三兩(煮), 生薑 三兩(切).
- 계지 4냥(껍질을 제거한다), 작약 6냥, 감초 3냥(달인다), 생강 3냥(썰다).

六味, 咬咀, 以水七升, 先煮五味, 取三升, 去滓, 內膠飴令消, 溫服, 一升, 日三服. 嘔家不可用此湯, 以其有甘草故也.

위의 여섯 가지 약재를 잘게 부수어, 물 7되를 넣고 먼저 다섯 가지 약재를 끓인다. 3승을 취하고 찌꺼기를 제거한 후, 물엿을 탕 속에 넣어 녹인다. 따뜻하게 1승씩 하루 세 번 복용한다. 구토하는 사람은 이 탕약을 사용할 수 없는데, 감초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金療男女因積勞虛損, 或大病後小腹作疼, 四體沈滯, 骨內疼酸, 吸吸少氣, 行動喘憊, 或小腹拘急, 腰背強痛, 心中虛悸, 咽乾唇燥, 面目少色, 或飲食無味, 陰陽癆弱, 悲憂慘戚, 多臥少起, 久者積年, 輕者有日, 漸致瘦削, 五臟氣竭則難

可復根.又治肺與大腸俱不足, 虛寒之氣, 小腹拘急, 腰痛羸瘠百病. 肘後黃耆建中湯, 有人參二兩.

《천금방》에서는 남녀가 과도한 피로로 인해 허손이 생기거나, 큰 병을 앓은 후 아랫배에 통증이 생기고, 사지가 무겁고 빠근하며, 뼈 속이 아프고 시큰거리며, 숨이 가쁘고 기운이 없으며, 움직일 때 숨이 차고, 또는 아랫배가 당기고 아프며, 허리와 등이 뻐뻐하고 아프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마르고 입술이 건조하며, 안색이 좋지 않고, 또는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며, 성기능이 쇠약해지고, 슬프고 우울하며, 누워 있는 시간이 많고 일어나는 시간이 적으며, 오래된 경우 수년이 되고 가벼운 경우에도 며칠이 되어, 점차 몸이 야위어가고, 오장의 기운이 다하면 회복하기 어렵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폐와 대장이 모두 부족하고, 허한(虛寒)의 기운으로 인해 아랫배가 당기고 아프며, 허리 통증과 야위어 가는 등 백 가지 병을 치료한다.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의 황기건중탕(黃耆建中湯)에는 인삼 2냥이 들어간다.

金匱黃耆建中湯.

금궤황기건중탕

勞裏急, 諸不足, 宜此方主之.

허로로 속이 당기고 불편할 때나 제반 부족 증상에는 이 처방을 주로 쓴다.

- 黃耆、桂枝(去皮)、生薑 各一兩(切), 芍藥 六兩, 甘草 三兩(煮), 大棗、膠飴 一升.
- 황기、계지(껍질을 제거한다)、생강 각 1냥(썬다), 작약 6냥, 감초 3냥(삶는다), 대추、교이 1승.

七味, 咬咀以水七升, 先煮六味取三升, 去滓, 內膠飴令消, 溫服一升, 日三服. 集驗云, 嘔者加生薑, 腹滿去棗, 加茯苓四兩. 一方療肺虛損不足, 痞氣加半夏五兩.

위의 7가지 약재를 잘게 부수어 물 7되에 넣고, 먼저 6가지 약재를 끓여 3되를 취한 다음 찌꺼기를 제거하고 교이를 넣어 녹인다. 따뜻하게 1되씩 하루 3번 복용한다. 《집험방(集驗方)》에서는 "구토하는 경우 생강을 추

가하고, 배가 더부룩할 때는 대추를 빼고 복령 4냥을 추가한다"고 한다.
다른 처방에서는 "폐가 허약하고 손상되어 부족할 때, 가슴이 답답한 증
상에 반하 5냥을 추가한다"고 하였다.



金匱黃耆桂枝五物湯.

금궤황기계지오물탕

痺病從何得之.師曰, 夫尊樂人, 骨弱肌膚盛, 重因疲勞血出, 臥不得時動搖, 加被微風, 遂得之, 但以脉自瀉, 在寸曰: 開上下緊, 宜針陽氣, 令脉和緊去則愈. 血痺, 陰陽俱微, 寸口・關上微, 尺中小緊, 外證身體不足如風狀, 宜此方主之.

혈비(血痺)는 어디에서 오는가? 스승이 말하길, "귀족으로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은 뼈가 약하고 살만 찌는데, 심한 피로로 인해 출혈이 생기고, 누워서 제때 움직이지 못하며, 약한 바람에 노출되면 결국 이 병에 걸린다. 다만 맥이 스스로 거칠어지는데, 촌맥은 위아래가 열리고 팽팽하다. 양기를 자침하여 맥이 조화롭고 팽팽함이 사라지면 낫는다." 혈비는 음양이 모두 미약하고, 촌구와 관상이 약하며, 척중이 약간 팽팽하다. 외부 증상으로는 몸에 힘이 없어 바람 맞은 듯한데, 이 처방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 黃耆 三兩, 芍藥 三兩, 桂枝 三兩(去皮), 生薑 六兩(切), 大棗.
- 황기 3냥, 작약 3냥, 계지 3냥(껍질을 제거한다), 생강 6냥(썬다), 대추.

五味, 咬咀, 以水六升, 煮取二升, 去滓, 溫服七合, 作三服. 一方有人參.

위의 다섯 가지 약재를 잘게 부수어 다음, 물 6되를 넣고 끓여 2되가 되게 한다. 찌꺼기를 걸러내고 7홉을 따뜻하게 복용하되 3번에 나누어 먹는다.
다른 처방에는 인삼이 포함되어 있다.



金匱桂枝加龍骨牡蠣湯.

금궤계지가용골모려탕

雄散亦主之.

천웅산(天雄散)으로도 주치한다.

男子平人, 脉大爲勞, 極虛亦爲勞. 男子面色薄者, 主濁及亡血. 卒喘悸, 浮者, 裏虛也. 男子脉虛沈弦, 無寒熱, 短氣裏急, 小便不利, 面色白, 時日暝兼衄, 少腹滿, 此爲勞使之然. 勞之爲病, 其脉浮大, 手足煩, 春夏劇, 秋冬差, 陰寒精自出, 酸削不能行. 男子脉微弱而瀼, 爲無子, 精清冷. 夫失精家, 小腹弦急, 陰頭寒, 目眩 [一作眼脹, 脹痛也.], 髮落, 脉極虛芤遲, 爲清穀、亡血、失精. 脉得之芤動微緊, 男子失精, 女子夢交, 並以此方主之.

보통 평범한 남자의 경우, 맥이 크면 노동으로 인한 것이고, 맥이 극도로 허하여도 노동으로 인한 것이다. 남자의 안색이 옅은 것은 주로 탁한 기운과 실혈로 인한 것이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두근거리며 맥이 부(浮)한 것은 속이 허한 것이다. 남자의 맥이 허하고 침현(沈弦)한데 한열왕래가 없으면 숨이 짧아지고 속이 급하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안색이 희며 때때로 눈이 어두워지고 코피가 나며 아랫배가 그득해지는데 이는 노동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노동으로 인한 병은 그 맥이 뜨고 크며 손발이 번열하고 봄여름에 심해지고 가을겨울에 나아지며 음부가 차고 정액이

저절로 나오며 시고 지독하게 아파서 견지 못한다. 남자의 맥이 미약하고 색(瀼)하면 자식이 없고 정액이 맑고 차갑다. 대저 정기를 잃은 사람은 아랫배가 긴장되고 당기며 음경 끝이 차고 눈이 어지럽고 [한가지 견해로는 눈이 붓고 아프다고 한다.] 머리카락이 빠진다. 맥이 극도로 허하고 구(芤)하며 느리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고, 출혈이 있거나 정액이 새어 나간다. 맥이 구(芤)하고 미(微)하며 긴(緊)하게 뛰면 남자는 정기를 잃은 것이고 여자는 꿈에 교접하는 것이다. 모두 이 방법으로 다스린다.

- 桂枝(去皮) · 芍藥 · 生薑 各二兩(切), 甘草二兩(煮), 大棗 十二枚, 龍骨(煨) · 牡蠣 各三兩(熬).
- 계지(껍질을 제거한다) · 작약 · 생강 각 2냥을 썰고, 감초 2냥(삶는다), 대추 12개, 용골(굽는다) · 모려 각 3냥(볶는다).

七味, 咬咀, 以水七升, 煮取三升, 去滓, 分溫三服. 少諾云 : 虛羸浮熱汗出者, 除桂, 加白薇 · 附子各一分, 故云加龍骨湯.

위의 7가지 약재를 잘게 부수어 물 7되에 넣고 달여서 3되를 취한 다음,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하여 3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소낙(少諾)이 말하기를, "허약하고 마른 사람이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경우에는 계지를 제거하고, 백미와 부자를 각각 1분씩 더하니, 그래서 '가용골탕(加龍骨湯)'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天雄散.

천웅산

- 雄 三兩(去皮), 白朮 八兩, 桂枝 六兩(去皮), 龍骨 一兩(煨).
- 천웅 3냥(껍질을 제거한다), 백출 8냥, 계지 6냥(껍질을 제거한다), 용골 1냥(구워서 사용)

四味搗爲末, 酒服方寸匕, 日三服. 不如, 稍增之.

위의 네 가지 약재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술에 타서 방춘시만큼 하루 세 번 복용한다. 효과가 없으면 조금씩 양을 늘린다.

易簡建中湯.

이간건중탕

腹中切痛, 增損治療 各各不同, 並見于後. 此藥飲酒人不喜甘者, 不宜服. 此藥與桂枝湯用藥一同, 但減芍藥加官桂枝數, 專治傷風發熱自汗, 用此藥表之, 無汗者不宜服此.

복부 중앙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치료하며 각 각 다르니 뒤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이 약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약은 계지탕(桂枝湯)과 사용하는 약재가 같지만 작약을 줄이고 관계(官桂)의 양을 늘린 것이다. 주로 상풍(傷風)으로 인한 발열과 자한을 치료하는데 이 약으로 표증을 치료한다. 땀이 나지 않는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官桂 三分, 白芍藥 一兩半, 甘草 半兩.
- 관계 3푼, 백작약 1.5냥, 감초 0.5냥.

咬咀, 每服四錢水一盞半, 生薑五片, 棗一枚, 煎至六分, 去滓服.

위의 처방을 잘게 부순 후, 매번 4돈을 물 1.5잔에 복용한다. 생강 5조각, 대추 1개와 함께 넣고 6푼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걸러내고 복용한다.

治婦人血痛, 男子心腹疼痛, 并四肢拘急疼痛. 心腹疼痛甚者, 加遠志半兩, 或吐或瀉, 狀如霍亂, 及冒濕寒, 賊風入腹, 拘急切痛, 加附子三分. 痛氣發作, 當歸附子建中湯煎時, 加蜜一匙頭許.

一方治男子、婦人諸虛不足, 小腹急痛, 脇肋膨脹, 臍下虛滿, 胞中煩悸, 面色痿黃, 唇口乾燥, 少力身重, 胞滿短氣, 腰背強痛, 骨肉酸疼, 行動喘乏, 不能飲食, 或因勞傷過度, 或因病後不復, 加黃耆一兩半, 名黃耆建中湯. 一方治婦人一切氣血虛損及產後勞傷, 虛羸不足, 腹中疼痛, 呼吸少氣, 小腹拘急, 痛引腰背, 時自汗出, 不思飲食, 加當歸一兩.

건중탕(建中湯)은 부인의 혈통(血痛)과 남자의 심복통, 그리고 사지의 경련성이나 통증을 치료한다. 심복통이 심한 경우에는 원지 0.5냥을 추가한다. 구토나 설사가 있고 증상이 팽만과 같거나, 습한 한기에 노출되었거나, 사기(邪氣)가 복부로 들어가 경련성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부자 3푼을 추가한다. 통증이 발작할 때는 당귀부자건중탕(當歸附子建中湯)을 달일 때 꿀 한 숟가락 정도를 추가한다.

다른 처방으로 남녀의 여러 허약증과 소복부의 급통, 옆구리의 팽창, 배꼽 아래의 허만감, 자궁 내 번민과 두근거림, 얼굴색이 누렇게 시들고, 입술과 입이 건조하며, 기력이 없고 몸이 무거우며, 배가 팽만하고 숨이 짧

으며, 허리와 등이 뻣뻣하고 아프며, 뼈와 살이 시큰거리고 아프며, 움직일 때 숨이 차고 기운이 없으며,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 또는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손상이나 병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황기 1냥 반을 추가하여 황기건중탕(黃耆建中湯)이라 한다. 또 다른 처방으로 부인의 모든 기혈 허손과 산후 노상(勞傷), 허약하고 기력이 부족하며, 복부 통증, 숨쉬기 힘들고 기운이 없으며, 소복부가 당기고 아프며, 통증이 허리와 등으로 이어지고, 때때로 식은땀이 나며,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증상에는 당귀 1냥을 추가한다.

柴胡桂枝湯¹

시호계지탕²

1. 柴胡桂枝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시호계지탕 :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은 상한론(傷寒論)에 기재된 처방으로, 시호와 계지를 주요 약재로 하는 탕약이다. 이 처방은 주로 소양병(少陽病)과 태양병(太陽病)이 겹쳐있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桂枝人參湯.¹

계지인삼탕²

¹. 桂枝人參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계지인삼탕 : 계지인삼탕(桂枝人參湯)은 계지와 인삼을 주요 약재로 하는 처방명이다.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기록된 것으로, 양허(陽虛)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계지、부자. 계지를 제거하고 백출을 더하여서 달인 탕. 桂枝、附子, 去桂加白朮湯.

桂枝、附子, 去桂加白朮湯.¹

계지、부자. 계지를 제거하고 백출을 더하여서 달인 탕.

¹. 桂枝、附子, 去桂加白朮湯. : 원본에 처방명 수준에 적혀 있음 ←

桂枝芍藥湯.¹

계지작약탕²

[若誤下傳³, 裏傳表也.]

[만약 잘못 처방하여 오하전(誤下傳)이 되면 병이 속에서부터 겉까지 전염된다.]

1. 桂枝芍藥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계지작약탕 : 계지작약탕(桂枝芍藥湯)은 계지와 작약을 주요 구성 약재로 하는 한의학 처방이다. 이 처방은 주로 태양병(太陽病)의 초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기록된 처방 중 하나로, 발열과 오한이 반복되는 증상, 두통, 전신 통증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3. 誤下傳 : 병이 태양에서 태음비토로 전해지는 것을 말함. 太陽傳太陰脾土者, 名曰誤下傳 ※《동의보감》↔

桂枝加大黃湯.

계지가대황탕¹

[去枝加大黃, 與大柴胡法有表有裏同例. 已上諸湯並見活人舊小本中.]

[계지를 제거하고 대황을 더하는 것은 대시호탕(大柴胡湯)과 같이 겉과 속을 함께 다스리는 처방이다. 이상의 여러 탕약은 모두 《활인서(活人書)》의 오래된 판본에 실려 있다.]

¹. 계지가대황탕 : 계지가대황탕(桂枝加大黃湯)은 계지탕(桂枝湯)에 대황(大黃)을 추가한 처방이다.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기록된 것으로, 표사(表邪)와 함께 장부(腸腑)에 열이 있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 主¹朝奉桂枝白虎問答

왕조봉(王朝奉)² 계지백호 문답

云：春初秋末冬月，方用桂枝麻黃，五六月壯熱，不用白虎，若諾用桂枝麻黃，則內熱發黃生斑必死。二月三月四月溫病，宜陽旦湯。七月八月猶熱，病壯熱尙宜白虎，自然汁解。或問孫曰：杜張皆言變苦，果見桂枝麻黃證，亦豈得不用，只用白虎也。孫曰：此說甚妙，但臨時看證用之。老弱之人，不宜白虎。白虎治傷寒，亦治渴證。

말하기를: "봄 초, 가을 말, 겨울에는 계지와 마황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5월과 6월의 강렬한 열에는 백호탕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잘못하여 계지와 마황을 사용한다면, 내열(內熱)로 인해 황달이 생기고 반점이 생겨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2월, 3월, 4월의 온병(溫病)에는 양단탕(陽旦湯)이 적합하다. 7월과 8월에도 여전히 열이 있어 병이 심하고 열이 강렬하면 백호탕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연스럽게 땀이 나면서 해소될 것이다." 어떤 이가 손사막에게 물었다: "두씨??와 장중경은 모두 (계절의 원칙만으로) 변통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만약 계지와 마황의 증상이 보인다면 어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백호탕만 사용해

야 합니까?" 손(孫)이 말했다: "이 말씀은 매우 훌륭하다. 다만 그때그때 증상을 살펴 사용해야 한다. 노약자에게는 백호탕이 적합하지 않다. 백호탕은 상한을 치료하며, 갈증 증상도 치료한다."

1. 主 王 ※대교본목차 ←

2. 왕조봉(王朝奉) : 왕황(王貺). 《전생지미방(全生指迷方)》을 저술하였다. ←

† 桂枝例

계지의 처방례



活人陽旦湯.

활인양단탕

中風傷寒, 脉浮, 發熱往來, 汗出惡風, 項强, 鼻鳴乾嘔.

중풍과 상한을 치료할 때, 맥이 부(浮)하고, 열이 왔다 갔다 하며, 땀이 나고 바람을 싫어하며, 목이 뻣뻣하고, 코에서 소리가 나며 마른 구토를 한다.

- 桂枝三, 芍藥三, 甘草二, 黃芩二.
- 계지 3, 작약 3, 감초 2, 황금 2.

剉如麻豆大, 每服五錢, 水一盞半, 棗二箇, 生薑三片, 煎至一盞, 取八分, 清汁溫服.

위의 약재를 마자(麻子) 크기만큼 잘게 썰어, 매번 5돈을 복용한다. 물 1잔 반에 대추 2개, 생강 3조각을 넣고 1잔이 될 때까지 달인 후, 8푼을 취해 맑은 즙을 따뜻하게 복용한다.

汗者加附子, 渴者加桂加栝藹主, 利者去芍藥, 名當歸建中湯. 若產後半月, 每日三服, 令人可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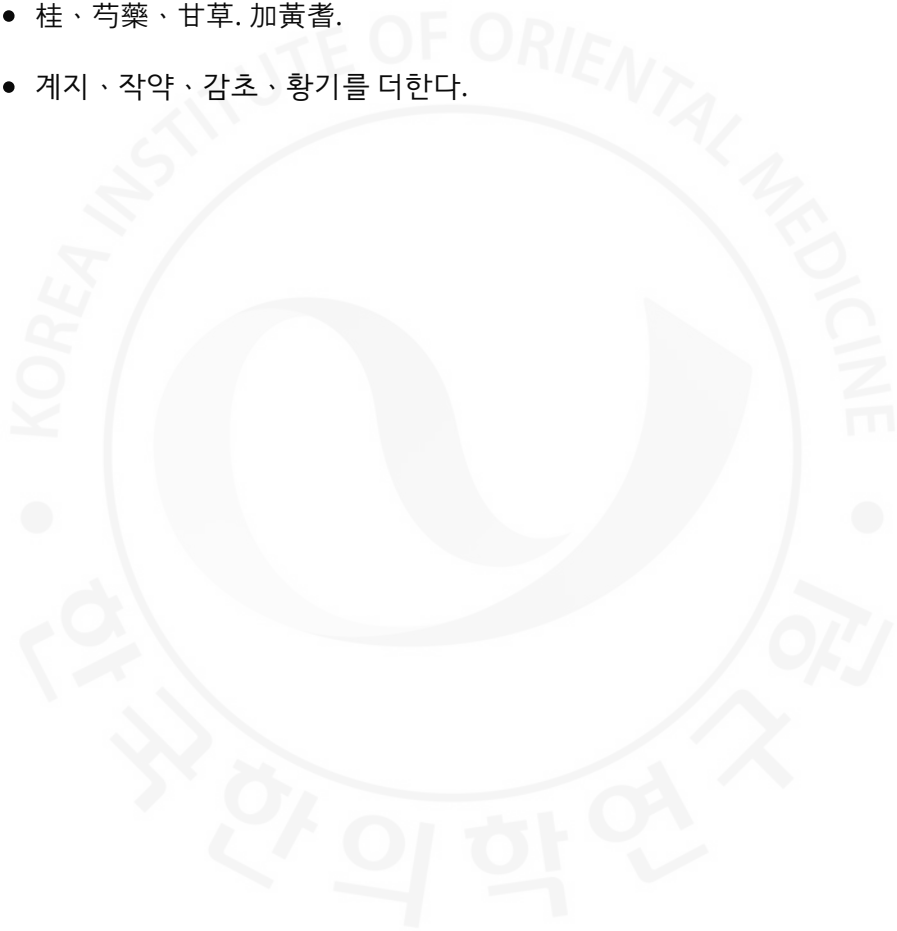
저절로 땀이 나는 경우에는 부자를 더하고,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계지와
과루인을 더하며, 설사하는 경우에는 작약을 제거한다. 이를 당귀건중탕
(當歸建中湯)이라고 한다. 만약 출산 후 보름 동안 매일 세 번 복용하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黃耆建中湯.

황기건중탕

- 桂、芍藥、甘草. 加黃耆.
- 계지、작약、감초、황기를 더한다.



當歸建中湯.

당귀건중탕¹

- 桂、芍藥、甘草, 加當歸.
- 계지、작약、감초. 당귀를 더한다.

局方藥令黃耆湯, 范汪當歸湯, 皆出桂枝建中例.

《태평हे민화제국방》의 약령황기탕(藥令黃耆湯)과 범왕당귀탕(范汪當歸湯)은 모두 계지건중탕(桂枝建中湯)의 처방 원칙을 따랐다.

¹. 당귀건중탕 : 당귀건중탕(當歸建中湯)은 중국 한의학의 고전 처방 중 하나로, 주로 혈허(血虛)와 기허(氣虛)를 동시에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이 처방의 주요 구성 약재로는 당귀, 백작약(白芍藥), 계지, 생강, 대추, 감초 등이 있다. ←

大建中湯.

대건중탕

[主治並見局方.]

[주치는 《태평हे민화제국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桂心 三錢, 芍藥 二錢, 甘草 八錢, 棗 二枚(擘破), 生薑 八錢, 加黃耆 二錢, 當歸 一錢, 人參 一錢, 附子 半錢, 半夏 三錢.
- 계심 3돈, 작약 2돈, 감초 8돈, 대추 2개(쪼갠다), 생강 3돈. 여기에 황기 2돈, 당귀 1돈, 인삼 1돈, 부자 0.5돈, 반하 3돈을 더한다.

㕮咀, 水五盞, 煎至三盞, 去滓, 分作三服.

위의 약재들을 잘게 부수어 물 다섯 잔을 넣어 세 잔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걸러내고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桂枝加葛根湯.¹

계지가갈근탕²

1. 桂枝加葛根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계지가갈근탕 : 계지가갈근탕(桂枝加葛根湯)은 계지탕(桂枝湯)에 갈근(葛根)을 추가한 처방이다. 주로 감기 초기의 발열, 오한, 두통, 목의 뻣뻣함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桂枝加厚朴杏仁湯.¹

계지가후박행인탕²

¹. 桂枝加厚朴杏仁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계지가후박행인탕 : 계지가후박행인탕(桂枝加厚朴杏仁湯)은 계지탕(桂枝湯)을 기본으로 하여 후박(厚朴)과 행인을 추가한 처방이다. 이 처방은 주로 흉부 답답함과 호흡 곤란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桂枝加附子湯.¹

계지가부자탕²

¹. 桂枝加附子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계지가부자탕 : 계지가부자탕(桂枝加附子湯)은 계지탕(桂枝湯)에 부자를 추가한 처방이다.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로 태양병(太陽病)에 표증(表證)과 허한증(虛寒證)이 동시에 나타날 때 사용된다. ←

桂枝去桂加白朮茯苓湯.¹

계지거계가백출복령탕²

1. 桂枝去桂加白朮茯苓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계지거계가백출복령탕 : 이 처방명은 '계지탕(桂枝湯)'에서 계피(桂皮)를 제거하고 백출과 복령을 추가한 것을 의미한다. ←

桂枝加芍藥湯.¹

계지가작약탕²³

1. 桂枝加芍藥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계지가작약탕 : 계지가작약탕(桂枝加芍藥湯)은 계지탕(桂枝湯)에 작약을 추가한 처방이다. 이 처방은 태양병(太陽病)의 표증(表證)과 리증(裏證)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된다. ↩
3. 이 처방은 계지탕의 기본 구성에서 작약을 빼고 부자를 추가하여 양기를 보하고 한사를 제거하는 효과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

桂枝去芍藥加附子湯.¹

계지거작약가부자탕²

1. 桂枝去芍藥加附子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계지거작약가부자탕 : 이 처방은 계지탕의 기본 구성에서 작약을 빼고 부자를 추가하여 양기를 보하고 한사를 제거하는 효과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

桂枝甘草湯.¹

계지감초탕²

¹. 桂枝甘草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계지감초탕 : 계지감초탕(桂枝甘草湯)은 계지와 감초를 주요 구성 약재로 하는 처방이다.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기록된 것으로, 주로 심계항진(心悸亢進)이나 맥결(脈結)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桂枝白朮甘草湯.¹

계지백출감초탕²

味.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이 있다.

1. 桂枝白朮甘草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계지백출감초탕 : 이 처방은 계지, 백출, 감초로 구성된 탕약이다. 계지는 발산 작용을, 백출은 비위를 보하는 작용을, 감초는 조화 작용을 한다.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처음 등장하는 방제로, 주로 표허(表虛)로 인한 한습(寒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茯苓桂枝甘草大棗湯.¹

복령계지감초대조탕²

味漫水.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이 물에 퍼져있다.

¹. 茯苓桂枝甘草大棗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복령계지감초대조탕 :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등장하는 방제로, 복령, 계지, 감초, 대조를 주요 구성 약재로 하는 탕약이다. 이 처방은 주로 수분 대사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부종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

茯苓桂枝生薑甘草湯.¹

복령계지생강감초탕²

味.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이 있다.

¹. 茯苓桂枝生薑甘草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복령계지생강감초탕 : 복령계지생강감초탕(茯苓桂枝生薑甘草湯)은 복령, 계지, 생강, 감초를 주요 재료로 하는 한방 처방이다. 이 처방은 주로 수분 대사 조절, 소화 기능 개선, 심신 안정 등에 사용된다. ←

桂枝加桂湯.¹

계지가계탕²

¹. 桂枝加桂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계지가계탕 : 계지가계탕(桂枝加桂湯)은 계지탕에 계지를 추가한 처방이다. 이 처방은 《상한론》에 기재되어 있으며, 태양병의 표증이 심하여 발열과 오한이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桂枝去芍藥加蜀葵牡蠣龍骨救逆湯.¹

계지거작약가촉규모려용골구역탕²

1. 桂枝去芍藥加蜀葵牡蠣龍骨救逆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계지거작약가촉규모려용골구역탕 : 이 처방은 계지탕(桂枝湯)에서 작약을 제거하고 촉규(蜀葵), 모려, 용골을 추가한 변방(變方)이다. 구역(救逆)은 이 처방이 상기(上氣)나 역기(逆氣) 등의 증상을 다스리는 데 사용됨을 나타낸다. ←

桂枝甘草龍骨牡蠣湯.¹

계지감초용골모려탕²

1. 桂枝甘草龍骨牡蠣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계지감초용골모려탕 : 이 처방은 《금궤요략(金匱要略)》에 수록된 방제로, 심계항진(心悸亢進)과 불면(不眠)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처방 구성은 계지, 감초, 용골, 모려로 이루어져 있다. ←

柴胡桂枝甘草湯.¹

시호계지감초탕²

加乾薑三, 心下悸者去芍藥加茯苓三. 虛勞裏急者正陽旦湯主之, 煎時入膠飴佳. 若脉浮緊, 無汗發熱者, 不可與服也.

계지에 건강 3푼을 더하고, 명치에 두근거림이 있는 경우에는 작약을 빼고 복령 3푼을 더한다. 허로로 인해 복부에 경련이 있는 자는 정양단탕(正陽旦湯)으로 치료하며, 달일 때 아교와 조청을 넣으면 좋다. 만약 맥박이 뜨고 긴장되어 있으며 땀이 나지 않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복용해서는 안 된다.

¹. 柴胡桂枝甘草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시호계지감초탕 : 호계지감초탕(柴胡桂枝甘草湯)은 시호, 계지, 감초를 주요 구성 약재로 하는 한방 처방이다. 이 처방은 주로 열이 있으면서 오한이 나는 증상, 즉 한열왕래(寒熱往來)를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기록된 처방 중 하나로, 소시호탕(小柴胡湯)과 계지탕(桂枝湯)을 합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活人陰旦湯.

활인음단탕

[王朝奉陰旦陽旦湯與活人同.]

[왕조태음단탕은 《활인서》와 처방이 동일하다.]

傷寒股節疼痛, 內寒外熱, 虛煩.

상한병으로 인해 엉덩이와 관절이 아프고, 속은 차갑고 겉은 뜨거우며,
허한 가운데 번조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 桂心 三, 芍藥 三, 甘草 一, 大棗 十五枚, 乾薑 一, 黃芩 二(此一味酌量加減).
- 계심 3, 작약 3, 감초 1, 대추 15, 건강 1, 황금 2(이 한 가지 약재는 적절히 가감한다)

剉如麻豆大, 每服五錢, 水一盞半, 煎至八分, 去滓, 溫服, 日三夜二.

위의 약재들을 마자(麻子) 크기로 잘게 썰어, 매번 5돈을 복용한다. 물 1
잔 반에 넣고 8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걸러내고 따뜻하게 복용
한다. 낮에 3번, 밤에 2번 복용한다.



活人解肌湯.

활인해기탕

[治溫病頭疼壯熱.]

[온병(溫病)으로 인한 두통과 발열을 치료한다.]

- 桂心 一分, 芍藥 半兩, 甘草 一分, 麻黃 三分, 葛根 一兩, 黃芩 半兩.
- 계심 1푼, 작약 0.5냥, 감초 1푼, 마황 3푼, 갈근 1냥, 황금 0.5냥.

剉如麻豆大, 每服五錢, 水一盞半, 棗一枚, 煎至八分, 日三服. 三日後不解者再服, 脉浮者宜再服, 脉沈實者下.

위의 약재를 마두(麻豆) 크기로 썰어, 매번 5돈을 복용한다. 물 1잔 반에 대추 1개를 넣고 8푼이 될 때까지 달인 후, 하루 3번 복용한다. 3일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복용하고, 맥이 뜨는 사람은 다시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맥이 가라앉고 실한 사람은 설사시킨다.

仲景麻黃湯.

중경마황탕

傷寒無汗, 脉浮而緊.

상한에 땀이 나지 않고 맥이 뜨면서 긴장되어 있는 것을 치료한다.

- 麻黃(去節) 一錢, 官桂(去浮皮) 一錢, 甘草 半錢(煮), 杏仁 三箇半.
-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1돈, 관계(겉껍질을 제거한다) 1돈, 감초 0.5돈(달인다), 행인 3.5개.

爲麤末, 每服五錢, 水一盞半, 煎至八分, 去滓, 溫服. 夏加知母、黃芩、石膏, 恐有斑黃之變, 惟冬與春病人, 素虛寒者, 不宜加此.

위의 처방은 거친 가루로 만들어, 매번 5돈을 복용한다. 물 1.5잔에 넣고 8분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걸러내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여름에는 지모、황금、석고를 더하는데, 이는 반진(斑疹)이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우려해서이다. 다만 겨울과 봄에 병든 사람, 평소 허약하고 냉한 사람은 이것들을 더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仲景桂枝各半湯.

중경계지각반탕

- 桂枝 一錢半, 芍藥 一錢, 生薑 一錢, 甘草 一錢, 麻黃 一錢, 杏仁 二枚半, 棗 半枚.
- 계지 1.5돈, 작약 1돈, 생강 1돈, 감초 1돈, 마황 1돈, 행인 2.5개, 대추 0.5개.

爲麤末, 每服五錢, 水一盞半, 煎至八分, 去滓, 溫服.

위의 약재를 거칠게 가루 내어 매번 5돈을 복용한다. 물 1.5잔에 10분의 8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議先生云：治傷風得傷寒脉, 傷風脉, 證脉不同, 故宜各半湯.

봉의선생(奉議先生)¹이 말하기를, "상풍(傷風)을 치료하는데 상한의 맥이 나타나면, 상풍의 맥과 증상의 맥이 서로 다르므로, 마땅히 계지각반탕을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¹. 봉의선생(奉議先生) : 주굉(朱肱), 奉議郎致仕(봉의랑치사), 저서 《類證活人書(유증활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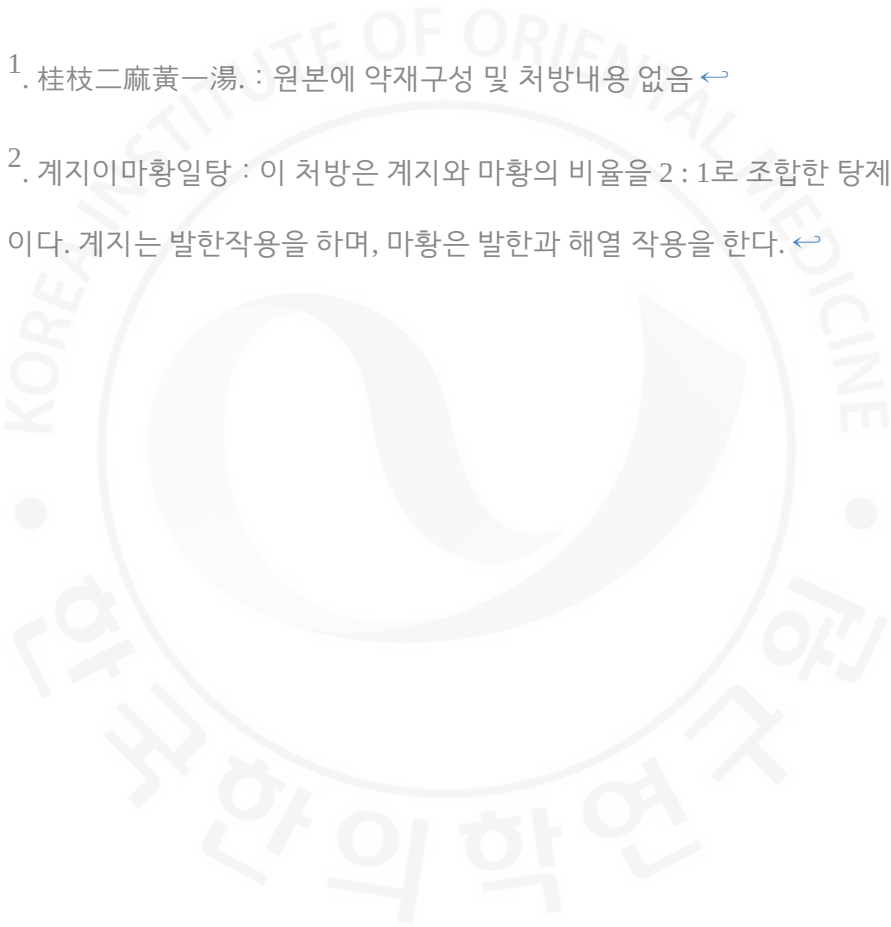


桂枝二麻黃一湯.¹

계지이마황일탕²

1. 桂枝二麻黃一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계지이마황일탕 : 이 처방은 계지와 마황의 비율을 2:1로 조합한 탕제이다. 계지는 발한작용을 하며, 마황은 발한과 해열 작용을 한다. ←



桂枝二越婢一湯.¹

계지이월비일탕²

¹. 桂枝二越婢一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계지이월비일탕 : 계지이월비일탕(桂枝二越婢一湯)은 계지탕(桂枝湯) 2첩과 월비탕(越婢湯) 1첩을 합한 처방이다. 이는 계지탕의 발한(發汗) 작용과 월비탕의 이수(利水) 작용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

大靑龍湯.

대청룡탕

[麻黃、杏仁、甘草、石膏湯, 大靑龍湯去桂是也.]

[마황, 행인, 감초, 석고탕은 대청룡탕(大靑龍湯)에서 계지를 뺀 것이
다.]

- 麻黃 三錢, 桂 一錢, 杏仁 二枚, 生薑 五錢, 棗 一枚, 甘草 一錢, 石膏 一錢
半.
- 마황 3돈, 계지 1돈, 행인 2개, 생강 5돈, 대추 1개, 감초 1돈, 석고 1.5돈.

爲麤末, 每服五錢, 水一盞半, 煎至八分, 去滓, 溫服, 汗周止後服.

위의 약재들을 거칠게 가루내어, 매번 5돈을 복용한다. 물 1잔 반에 넣고
10분의 8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걸러내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땀
이 나고 그친 후에 복용한다.

小青龍湯.

소청룡탕

- 麻黃、細辛、乾薑、甘草、桂枝、芍藥 各三字, 五味子 半錢, 半夏 一錢一字, 生薑 三片, 棗 一枚.
- 마황、세신、건강、감초、계지、작약 각 3돈, 오미자 0.5돈、반하 1돈 1자, 생강 3조각, 대추 1개.

爲麤末, 水一盞半, 煎至八分, 去滓, 溫服, 日三夜二.

위의 것들을 거칠게 갈아서 물 한 잔 반을 넣고 8푼이 될 때까지 달인다.
찌꺼기를 걸러내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낮에는 세 번, 밤에는 두 번 복용한다.

人增損爲華蓋散, 大靑龍去桂、石膏, 倍杏仁, 治嗽.

후인들이 화개산(華蓋散)을 증감하여 만들었는데, 대청룡탕(大靑龍湯)에서 계지와 석고를 제거하고 행인을 두 배로 늘려 기침을 치료하였다.

仲景雜方

중경의 잡방

治客忤.

객오(客忤)를 치료한다.

- 黃 四兩, 杏仁 七十枚, 甘草 三兩.
- 마황 4냥, 행인 70개, 감초 3냥.

右以水八升, 煮取三升, 服之.

위의 약재를 물 8되로 달여 3되를 취해 복용한다.

또 다른 처방. 又方.

又方.

또 다른 처방.

- 一兩, 生薑 三兩, 梔子 十四枚, 豉 五合.
- 계지 1냥, 생강 3냥, 치자 14개, 두시 5홉.

以酒三升, 攪煮之, 去滓, 頓服, 取差. 一法用桂枝, 一法用麻黃, 以其有汗無汗也.

위의 약재를 술 3되에 넣고 저으면서 달인 다음, 찌꺼기를 제거하고 한 번에 복용하면 차도가 있다. 한가지 방법은 계지를 사용하고, 다른 방법은 마황을 사용하는데, 이는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따른 것이다.

仲景麻黃升麻湯.

중경마황승마탕

壞證傷寒六七日, 大下後寸脉沈而遲, 手足厥, 下部脉不至, 咽喉不利, 唾膿血, 泄利不止者爲難治.

상한 6 - 7일이 지나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심하게 설사한 후, 촌맥이 침(沈)하고 지(遲)하며, 손발이 차갑고, 하부의 맥이 뛰지 않으며, 목구멍이 불편하고, 고름과 피를 뱉으며,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 升麻 一兩一錢, 麻黃(去節) 二兩, 知母、黃芩、葳蕤 各十八銖, 石膏、白朮、乾薑、芍藥、天門冬、桂枝、茯苓、當歸 各一兩一錢, 甘草 六銖.
- 승마 1냥 1돈,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2냥, 지모、황금、위유 각 18조각, 석고、백출、건강、작약、천문동、계지、복령、당귀 각 1냥 1돈, 감초 6조각.

十四味, 以水一斗, 先煮麻黃一兩, 沸去上沫, 內諸藥, 煮取三升, 去滓, 分溫三服, 相去如炊三斗米頃, 令盡汗出愈. 寸脉沈遲, 下部又不至, 泄利久不止, 不可輕用此藥.

위의 14가지 약재를 물 1되 넣고, 먼저 마황 1냥을 끓여 위에 뜬 거품을 건어낸 다음, 나머지 약재를 넣어 3되가 되도록 달인다. 찌꺼기를 걸러내고 3번에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쌀 3되를 짓는 시간 정도로 하며, 땀이 완전히 나면 병이 낫는다. 촌맥이 침(沈)하고 지(遲)하며, 하부에 맥이 이르지 않고, 설사가 오래 멈추지 않으면 이 약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海藏云, 仲景麻黃升麻湯條下, 爲下之而寸脉沈遲, 或厥, 或咽喉不利, 咳嗽, 下膿血, 或下利不止, 斷作難治. 此藥有桂枝, 有麻黃湯, 有乾薑芍藥甘草湯, 有白虎湯, 內更有少陽藥黃芩是也, 此是三陽合而標病, 不應不應下而下之, 壞而成肺痿也. 若脉不遲者, 去乾薑、官桂, 不下利者亦去之, 寸口脉小者去黃芩, 此隨證而加減之也. 前人全用藥以某前證悉備, 故用三陽標藥以治之. 經曰, 治病必求其本是也.

해장(海藏)¹이 말하기를, "장중경의 마황승마탕(麻黃升麻湯) 조문 아래에서 '설사시킨 후에 촌맥이 침지(沈遲)하거나, 혹은 꺾(厥)하거나, 혹은 인후가 불편하고 기침을 하며, 피고름을 쏟아내거나, 혹은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결단코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약에는 계지가 있고, 마황탕(麻黃湯)이 있으며, 건강작약감초탕(乾薑芍藥甘草湯)이 있고, 백호탕(白虎湯)이 있으며, 그 안에 또한 소양의 약인 황금이 있다. 이는 삼양(三陽)이 합하여 표병이 된 것인데, 하법(下法)을 쓰지 말아야 함에도 하법을 써서 망가뜨려 폐위(肺痿)가 된 것이다. 만약 맥이 지(遲)하지 않으면

건강과 관계(官桂)를 제거하여 쓰고, 설사하지 않으면 또한 이를 제거해서 쓰며, 촌구멍이 작으면 황금을 제거하도록 하니, 이는 증상에 따라 가감하는 것이다. 선대 사람들이 약을 완전히 다 사용한 것은 앞의 증상들이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삼양의 표약(標藥)을 사용하여 치료한 것이다. 《내경(內經)》에서,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그 근본을 찾아야 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1. 해장(海藏) : 왕호고 ←

† 肺痿之源

폐위(肺痿)의 근원

衍義云, 有一溫病已十二日, 診之, 其脉六七至而瀼, 寸稍大, 尺稍小, 發寒熱, 頰赤口乾, 目不了了, 耳聾. 問之病後數日經水乃行, 此屬少陽熱入血室也. 若治不對病, 則必死, 乃按其證與小柴胡, 服之二日, 又與小柴胡湯加桂、乾薑也, 一日寒熱遂止. 又云, 我臍下急痛. 又與抵當丸, 微利, 臍下痛瘥, 身漸涼, 脉漸勻, 尚不了了, 乃復與小柴胡湯. 次日云, 我但胸中熱燥, 口鼻乾. 又少與調胃承氣湯, 不得利. 次日又云心下痛. 又與陷胸丸半服, 利三行之日, 虛煩不寧, 時妄有所見, 時復狂言, 雖知其中有燥屎, 以其極虛, 不敢攻之, 遂與竹葉湯去其煩熱, 其夜大便自通, 至曉兩次, 有燥屎數枚, 而狂言虛煩盡解, 但咳嗽唾, 此肺虛也. 若不治, 恐乘虛而成肺痿, 遂與小柴胡去人參、大棗、生薑, 加乾薑五味子湯, 一日咳嗽減, 二日而病悉愈. 以上皆用張仲景方.

《본초연의(本草衍義)》¹에서 이르기를, "한 온병(溫病) 환자가 이미 12일째 앓고 있었다. 진찰해보니 그 맥박이 6 - 7번 뛰고 거칠었으며, 손맥은 약간 크고 척맥은 약간 작았다. 오한과 발열이 있고, 땀이 붉으며 입이 마르고, 눈이 또렷하지 않으며 귀가 멍멍했다. 물어보니 병이 난 후 며칠 지나 월경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소양의 열이 혈실(血室)로 들어간

것이다. 만약 병에 맞지 않게 치료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므로, 그 증상에 따라 소시호탕(小柴胡湯)을 투여했다. 이틀을 복용한 후 다시 소시호탕에 계지와 건강을 더해 주었더니, 하루 만에 오한과 발열이 그쳤다. 또 환자가 말하기를 '배꼽 아래가 갑자기 아프다'고 했다. 다시 저당환(抵當丸)을 주었더니 약간의 설사를 하고 배꼽 아래 통증이 나았으며, 몸이 점차 서늘해지고 맥박이 점차 고르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지 않아 다시 소시호탕을 주었다. 다음날 환자가 말하기를 '단지 가슴 속이 뜨겁고 건조하며, 입과 코가 마르다'고 했다. 다시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조금 주었으나 설사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또 '심하부가 아프다'고 했다. 다시 함흉환(陷胸丸) 0.5개를 복용시키니 세 번 설사를 했다. 그날 허약하고 번조하여 안정되지 않았으며, 때때로 헛것을 보고 때때로 헛소리를 했다. 비록 장 속에 마른 똥이 있음을 알았지만, 극도로 허약해져 공격하기를 감히 하지 못했다. 이에 죽엽탕(竹葉湯)을 주어 번열을 제거했더니, 그날 밤 대변이 저절로 통했고 새벽에 두 번 더 나왔는데 마른 똥 몇 덩이가 있었다. 그러자 헛소리와 허약한 번조가 모두 해소되었다. 다만 기침을 하며 가래를 뱉었는데, 이는 폐가 허약한 것이다. 만약 치료하지 않으면 허약함을 타고 폐위(肺痿)가 될까 염려되어, 이에 소시호탕에서 인삼, 대추, 생강을 빼고 건강과 오미자를 더한 탕을 주었다. 하루 만에 기침이 줄었고, 이틀 만에 병이 모두 나았다. 이상은 모두 장중경(張仲景)의 처방을 사용한 것이다."

王朝奉陽毒條下, 有金匱千金唾膿血二條, 內有吐血肺痿失治久不愈變肺癰爲難治, 孫真人詳說并藥證, 具見甘桔例少陰條下, 並出仲景金匱祖方.

왕조봉(王朝奉)²의 〈양독(陽毒)〉 조항 아래에는 《금궤요략(金匱要略)》과 《천금방(千金方)》의 타농혈(唾膿血) 두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 안에 '토혈(吐血)과 폐위(肺痿)가 오래 치료되지 않아 낫지 않으면 폐옹(肺癰)으로 변하여 치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 손진인(孫真人, 손사막)이 상세히 설명하고 아울러 약증(藥證)을 제시하였으니, 감초길경탕의 예시와 소음조(少陰條) 아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며, 모두 장중경 《금궤요략》의 원방에서 나온 것이다.

1. 《본초연의(本草衍義)》: 송대 구종석(寇宗奭)이 편찬. 1116년에 간행. 전 20권 ←

2. 왕조봉(王朝奉): 왕황(王貺). 《전생지미방(全生指迷方)》을 저술하였다. ←

仲景麻黃杏仁甘草石膏湯.¹

중경마황행인감초석고탕²

¹. 仲景麻黃杏仁甘草石膏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중경마황행인감초석고탕 :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기록된 마황탕(麻黃湯)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황탕은 발한해열(發汗解熱) 작용이 있어 외감풍한(外感風寒)으로 인한 표실증(表實證)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麻黃附子細辛湯.¹

마황부자세신탕²

1. 麻黃附子細辛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마황부자세신탕 : 마황부자세신탕(麻黃附子細辛湯)은 마황, 부자, 세신을 주요 약재로 하는 처방이다. 이 처방은 한의학에서 풍한(風寒)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麻黃連翹赤小豆湯.¹

마황연교적소두탕²

¹. 麻黃連翹赤小豆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마황연교적소두탕 : 마황연교적소두탕(麻黃連翹赤小豆湯)은 상한론(傷寒論)에 기록된 처방명이다. 마황, 연교, 적소두를 주요 약재로 사용하는 탕제로, 주로 풍열로 인한 발열, 두통, 관절통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麻黃附子甘草湯.

마황부자감초탕¹

[主治修製並見活人.]

[주치와 수치、포제는 모두 《활인서(活人書)》에서 볼 수 있다.]

¹. 마황부자감초탕 :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등장하는 방제로, 마황, 부자, 감초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외감 풍한(風寒)으로 인한 표허한증(表虛寒證)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마황은 발한해표(發汗解表), 부자는 온중축한(溫中逐寒), 감초는 조화약성(調和藥性)의 역할을 한다. ↩

易簡杏子湯.

이간행자탕

一切咳嗽, 不問外感風寒, 內傷生冷, 及虛勞咯血, 痰飲停積, 悉皆治療.

모든 기침을 치료하는데, 외감으로 인한 풍한, 속으로 생냉(生冷)한 음식에 상한 경우, 그리고 허로로 인한 객혈, 담음이 정체된 경우에 관계없이 모두 다 치료한다.

- 人參、半夏、茯苓、乾薑、甘草、官桂、芍藥、五味子、細辛.
- 인삼、반하, 복령、건강、감초、관계、작약、오미자、세신.

咬咀, 每服四錢, 水一盞半, 杏仁去皮尖, 剉, 五枚, 薑五片, 煎至六分, 去滓, 食前服.

위의 약재들을 잘게 부수어 가루 내어, 매번 4돈씩 복용한다. 물 1.5잔에, 행인 5개(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잘게 썬다)와 생강 5조각을 넣고 6푼이 될 때까지 달인다. 찌꺼기를 걸러내고 식사 전에 복용한다.

感冒得之, 加麻黃等. 如脾胃素實者, 用罌粟殼, 去筋膜, 碎, 剉, 以醋淹炒, 等分加之, 每服添烏梅一枚煎服, 其效尤驗. 若嘔逆惡心者, 不可用此法. 又云: 杏仁、人參, 倍加麻黃, 添芍藥加麻黃之數, 乾薑、五味子各增一半, 名小青龍湯, 大治久年咳嗽, 氣虛喘急, 皆得其宜. 二方中有麻黃, 有汗人不宜服此劑.

감기에 걸렸다면 마황 등을 추가한다. 비위가 본래 실한 사람은 앵속각을 사용하되, 근막을 제거하고 부수어 썬 다음 식초에 담갔다가 볶아서 같은 양을 더한다. 매 복용 시 오매 한 개를 추가하여 달여 먹으면 그 효과가 특히 뛰어나다. 구토와 메스꺼움이 있는 사람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말하기를, '행인과 인삼에 마황을 두 배로 더하고, 작약을 마황의 양만큼 추가하며, 건강과 오미자를 각각 절반씩 늘리면 소청룡탕(小青龍湯)이라' 한다. 이는 오래된 기침과 기허(氣虛)로 인한 숨가쁨을 크게 치료하며, 모두 적절하다. 두 처방에 마황이 들어 있으므로 땀이 나는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 仲景麻黃湯例

중경마황탕 처방예



仲景麻黃杏仁薏苡仁湯.

중경마황행인의이인탕

[治風濕身煩疼, 曰肺劇者.]

[풍습(風濕)으로 인해 몸이 번조하고 아픈 것을 '포극(肺劇)'이라고 한다.]

- 麻黃 三兩, 杏仁 三枚, 甘草、薏苡仁 各一兩.
- 마황 3냥, 행인 3개, 감초、율무인 각 1냥.

四味, 以水四升, 煮取二升, 分溫服.

위의 네 가지 약재를 물 4되에 넣고 달여서 2되를 취한 다음,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한다.

仲景薏苡仁附子湯.

중경울무인부자탕

[治胸痺偏緩急者.]

[흥비로 흥부 한쪽은 이완되고 한쪽은 긴장되는 증상을 치료한다.]

- 薏苡仁 一十五兩, 附子 十枚(炮).
- 울무인 15냥, 부자 10개(습지에 싸서 굽는다).

二味, 杵末, 每服方寸匕, 日三.

위의 두 가지 약재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매번 복용할 때마다 방
촌시만큼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

活人麻黃葛根葱豉湯.

활인마황갈근충시탕

傷寒三二日, 頭項腰脊痛, 惡寒, 脉浮而緊. 四味隨定奪分兩.

상한을 앓은 지 2 - 3일 되었을 때, 머리와 목, 허리와 등이 아프고, 오한이 있으며, 맥이 부(浮)하고 긴(緊)한 것을 치료한다. 네 가지 약재는 증상에 따라 분량을 정하여 가감한다.

剉如麻豆大, 水煮麻黃去沫, 次下葛根二十沸, 次下豉, 次下葱白, 煎成, 去滓, 溫飲, 少時以葱醋粥投之, 覆衣取汗. 後有活人葱白例并王朝奉葱白等方.

오른쪽의 약재들을 마두(麻豆) 크기로 썰어 놓고, 물에 마황을 삶아 거품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갈근을 넣고 20번 끓여오르면, 두시를 넣고, 그 다음 충백을 넣는다. 끓여서 완성되면 찌꺼기를 걸러내고 따뜻하게 마신다. 잠시 후 파와 식초를 넣고 끓인 죽을 먹고, 이불을 덮어 땀을 낸다. 후대에 《활인서(活人書)》의 충백 처방 예와 왕조봉(王朝奉)¹의 충백 등의 처방이 있다.

¹. 왕조봉(王朝奉) : 왕황(王貺). 《전생지미방(全生指迷方)》을 저술하였다. ←



活人知母麻黃湯.¹

활인지모마황탕²

1. 活人知母麻黃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활인지모마황탕 : 활인지모마황탕(活人知母麻黃湯)은 송대(宋代)의 학자 주굉(朱肱)의 저서 《활인서(活人書)》에 기록된 처방명이다. 이 처방은 주로 지모(知母)와 마황을 주요 약재로 사용하며, 발열과 오한을 동반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易老解利法.

역로(易老)의 해리법

- (乾)山藥 一兩, 藜蘆 一錢.
- 산약(말린다) 1냥, 여로 1돈.

爲細末, 紙燃蘸少許, 鼻內嚙之.

위의 약재들을 곱게 가루 내어, 종이를 태워 그 가루를 조금 묻혀 코 안에 넣어 맞는다.

麻黃醇酒湯.

마황순주탕

[治黃疸病.]

[황달을 치료한다.]

用麻黃去節, 去沫, 曝乾, 再用麻黃一把, 去節, 綿裹, 美酒五升, 煮取半升, 去滓, 頓服.

마황을 사용할 때는 마디를 제거하고, 거품을 제거하며, 햇볕에 말린다.

다시 마황 한 줌을 사용하되 마디를 제거하고, 솜으로 싸서 좋은 술 5되과

함께 끓여 반 되가 되게 한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한 번에 복용한다.

一法.

또 다른 처방.

風.此箇風字,非傷風自汗,卽中風、痺而無汗,故用麻黃.後越婢中有風痺字.

풍(風)을 치료한다. 이 '풍(風)'자는 상풍(傷風)으로 인한 자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중풍(中風)이나 비(痺)로 인해 땀이 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마황을 사용한다. 뒤에 나오는 월비탕(越婢湯) 처방에도 '풍비(風痺)'라는 글자가 나온다.

- 麻黃 一兩, 穿山甲 二錢, 人參 二錢, 甘草.
- 마황 1냥, 천산갑 2돈, 인삼 2돈, 감초.

酒各一碗, 同煎服.

물과 술을 각각 한 사발씩 넣고 함께 달여 복용한다.

越婢湯.

월비탕

[治風濕痺脚氣弱.]

[풍습비증(風濕痺症)과 각기로 인한 허약을 치료한다.]

- 麻黃(去節, 去沫, 焙)二兩, 石膏 四兩, 白朮 一兩, 附子 一兩(炮), 甘草(煮) 半兩.
- 마황(마디와 거품을 제거하고 볶는다) 2냥, 석고 4냥, 백출 1냥, 부자(볶는다) 1냥, 감초(삶는다) 0.5냥.

剉如麻豆大, 每服四錢, 水一盞半, 生薑三片, 棗一枚, 煎至八分, 去滓, 溫服.

위의 약재들을 마자(麻子) 크기로 잘게 썰어, 매 복용 시 4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3조각, 대추 1개와 함께 넣고 8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걸러내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通頂散.

통정산

[解利傷寒.]

[상한병의 설사증을 풀어준다.]

- 藜蘆 半兩, 躑躅華 一錢, 藿香葉 二錢.
- 여로 0.5냥, 척촉화 1돈, 곽향잎 2돈.

爲細末, 紙燃蘸少許, 鼻內嚙之.

위의 약재들을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종이를 태워 그 가루를 조금
문혀 코로 들이마시게 한다.

活人獨活散.

활인독활산

傷寒、溫、濕.

상한, 온병, 습병을 치료한다.

- 羌活、獨活、防風、細辛、黃芩、川芎、甘草、人參、茯苓、枳殼、甘菊華、石膏、麻黃、蔓荊子、薄荷、生薑.
- 강활、독활、방풍、세신、황금、천궁、감초、인삼、복령、지각、감국화、석고、마황、만형자、박하、생강.

十三味, 爲麤末, 坐薑薄荷水煎, 去滓, 溫服. 年高者以川芎代黃芩, 自汗者減麻黃, 風濕證多自汗, 故減麻黃.

위의 13가지 약재를 굵은 가루로 만들어, 생강과 박하를 우려낸 물로 달인 후 찌꺼기를 걸러내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황금 대신 천궁을 사용하고, 자한이 있는 사람은 마황을 줄인다. 풍습증은 대개 자한이 많으므로 마황을 줄인다.

活人敗毒散.

활인패독산

傷風、溫疫、風濕、風眩、風痰、卑濕.

상풍, 온역, 풍습병, 풍으로 인한 현훈, 풍담증, 비습증을 치료한다.

- 羌活、獨活、前胡、柴胡、枳殼、人參、茯苓、桔梗、甘草、川芎.
- 강활、독활、전호、시호、지각、인삼、복령、길경、감초、천궁.

細末, 生薑水煎, 或沸湯點亦可, 大人小兒皆宜. 瘴烟之地溫疫時行, 或人多風痰, 或處卑濕脚氣, 此藥不可闕也.

가루로 만들어 생강물에 끓이거나 끓는 물에 타서 마셔도 좋다.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적합하다. 산림장기처럼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온역이 유행하거나, 사람들이 풍담(風痰)을 많이 앓거나, 습기 찬 낮은 곳에서 각 기에 걸렸을 때, 이 약은 반드시 써야 한다.

海藏云, 傷寒得傷風脉, 傷風得傷寒脉, 故仲景有大青龍之劑, 及汗出過多, 戒不可服, 有筋惕肉瞤之證. 許公學士諄諄以此, 則知麻黃桂枝不可輕用也. 及洪川韓氏又有桂枝之戒, 以其亂治, 貴賤之不同、芳草壅鹽之不等故耳. 至於楊氏明理, 特有互見脉體, 非精於持診者, 則未易能也. 後之學者, 安所適從哉.

해장(海藏)¹이 말하기를, "상한병인데 상풍맥이 나오고, 상풍병인데 상한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중경이 대청룡탕(大靑龍湯) 같은 약제를 만들었으나, 만약 땀을 너무 많이 내면 복용을 금해야 하니, 근육이 떨리고 경련하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허공학사(許公學士)²가 간곡히 이를 경계하니, 이로써 마황과 계지를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홍천 한씨(洪川韓氏)³도 계지 사용에 대한 경계를 두었으니, 치료가 혼란스러워지고, 귀천의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는 약초와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양씨⁴의 명리론에서는 '특히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는 맥상이 있다'고 하였으니, 맥진에 정통한 자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후대의 학자들은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

先師潔古老人博採衆方，別立一法，作十味大羌活湯，無問有汗無汗，中風中寒，悉皆治之，使喜溫者去五積之變熱，好涼者除雙解之變寒，雖市夫農子，用而無失，自非聖賢之前身，豈能筆下有此胸次耶。

선사(先師) 결고노인(潔古老人)⁵이 여러 처방들을 널리 채집하여, 별도로 한 가지 치법을 세웠으니, 십미대강활탕을 지은 것이다. 땀이 있건 없건, 중풍이건 중한이건 묻지 않고 모두 치료할 수 있게 했으니, 따뜻한 약을 선호하는 자에게 오적산처럼 열로 전변되는 것을 막고, 시원한 약을 좋아하는 자에게 쌍해산처럼 차갑게 전변되는 것을 제거하였다. 비록 장

터의 상인이나 농부의 자식이라도 사용하여 실패함이 없으니, 스스로 성현의 전신(前身)이 아니라면, 어찌 붓 아래에서 이러한 식견과 기량을 가질 수 있겠는가.

1. 해장(海藏) : 왕호고 [↩](#)
2. 허공학사(許公學士) : 송대 허숙미(許叔微) [↩](#)
3. 홍천 한씨(洪川韓氏) : 한지화(韓祗和), 《상한미지론(傷寒微旨論)》 [↩](#)
4. 양씨 : 楊士瀛(양사영) [↩](#)
5. 결고노인(潔古老人) : 장원소(張元素, 1151 - 1234), 이고(李杲, 이동원)의 스승 [↩](#)

易老大羌活湯.

역로대강활탕

傷寒脉浮而緊, 傷風脉浮而緩, 并解兩感惡候.

상한으로 맥이 부(浮)하면서 긴(緊)한 것과, 상풍으로 맥이 부(浮)하면서 완(緩)한 것을 치료하며, 아울러 양감(兩感)의 나쁜 증후를 해소한다.

- 羌活、防風、白芷、川芎、細辛、甘草、蒼朮(製)、生地黃、黃芩.
- 강활、방풍、백지、천궁、세신、감초、창출(법제한다)、생지황、황금.

麤末, 每服五錢, 生薑五七片, 水一盞半, 煎至七分, 去滓, 稍熱服無時. 大羌活湯全生地黃, 木許臼中, 別爲麤末 各等分稱之. 名曰羌活地黃各半湯, 解利兩感傷寒有神, 詳說見難知易老大羌活湯, 劑料大小服餌, 溫熱加減, 並從緩急法.

위의 약재를 거칠게 가루 내어 매번 5돈을 복용하되, 생강 5~7편을 물 1.5잔에 넣고 10분의 7이 될 때까지 달인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약간 뜨거울 때 때를 가리지 않고 복용한다. 대강활탕에 생지황을 더하되, 나무 절구 안에서 따로 거칠게 가루 내어, 각각 같은 양으로 계량하니, '강활지황각반탕(羌活地黃各半湯)'이라 한다. 양감상한(兩感傷寒)을 해소하고 치료

하는 데 신호가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차사난지(此事難知)》에 역로(易老)의 대강활탕 조문에 나온다. 약재의 용량과 복용법, 온열에 따른 가감법은 모두 병의 완급에 따라 조절한다.

加大黃, 治風熱淫于內, 同瀉青丸, 主治並見錢氏. 一法治破傷風, 用豆淋酒煎, 素有寒者加草烏頭白末, 一字服之.

처방에 대황을 더하면 풍열(風熱)이 내부에 과도하게 침입한 것을 치료하니, 사청환(瀉青丸)과 함께 사용하며, 주치는 모두 전씨(錢氏)¹의 책에 보인다. 한 가지 방법으로 파상풍을 치료하는데, 두림주(豆淋酒)로 달이 되, 평소에 한증이 있는 자는 초오두(草烏頭) 흰 가루를 더하여 1자(字)를 복용한다.

¹. 전씨(錢氏) : 전을(錢乙, 1032 - 1113), 송대 《소아약증직결(小兒藥證直訣)》[←](#)

† 芎辛例

천궁과 세신의 예



芎辛湯.

궁신탕

頭風, 鼻塞, 身重, 肩背拘急.

두풍(頭風)과 코막힘, 몸이 무거우며 어깨와 등이 뻣뻣한 증상을 치료한다.

- 川芎 半兩, 細辛根 二錢, 甘草 一錢半.
- 천궁 0.5냥, 세신근 2돈, 감초 1.5돈.

爲麤末, 量多少水煎, 去滓, 分二服. 臨臥. 一法加吳白芷、辛夷、甘菊華, 治鼻出黃水濁涕不絕, 腦痛目昏.

위의 약재들을 거칠게 갈아서 적당량의 물로 달인 다음, 찌꺼기를 제거하고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취침 전에 복용한다. 다른 처방으로는 오백지、신이、감국화를 추가하면 코에서 누런 물과 탁한 콧물이 계속 나오고 뇌가 아프며 눈이 흐릿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易簡芎辛湯.

이간궁신탕

一切頭痛, 發熱者不當服, 其餘痰厥、飲厥、腎飲等證, 偏正頭痛不可忍者, 只以此藥并聖餅子, 不拘病退, 但多服此, 自能作效. 仍服養正丹、黑錫丹并用此藥調鍾乳粉間服, 諸證頭痛, 緊捷之法法以踰此. 但頭疼多用石膏, 蓋取其能墜痰飲, 然恐性寒, 故以鍾乳代之, 腎厥頭疼尤得其宜, 或以石膏煨過爲末用, 亦得.

모든 두통을 치료하는데, 열이 나는 경우에는 복용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 담결(痰厥), 음결(飲厥), 신음(腎飲) 등의 증상과 편두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이 약과 성병자(聖餅子)를 함께 쓰면 된다. 병이 물러나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이 약을 많이 복용하면 저절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양정단(養正丹)과 흑석단(黑錫丹)을 함께 복용하고 이 약으로 종유분(鍾乳粉)을 조제하여 번갈아 복용하면, 여러 가지 두통 증상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다. 다만 두통에는 석고를 많이 쓰는데, 이는 담음(痰飲)을 내리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질이 차가워 염려가 될 때는 종유(鍾乳)로 대신한다. 신결(腎厥)로 인한 두통에는 특히 적합하다. 혹은 석고를 구워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해도 된다.

- 生附子、川烏頭(生)、南星(炮)、乾薑、細辛、川芎 各一兩.

- 생부자、천오두(생것)、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건강、세신、천궁 각 1냥.

咀, 每服四錢, 水二盞, 薑五片, 茶芽少許, 煎至六分, 去滓, 食前服. 若氣壅塞盛, 只用川芎一兩, 細辛半兩, 甘草三錢, 煎至如前服. 又一方治頭疼, 以細辛二錢, 川芎、白芷減半, 爲細末, 搐入鼻中. 一方治氣虛人頭疼, 以附子一隻, 生去皮, 切作四片, 用生薑自然汁一大盞浸一宿, 慢火煮乾, 再煮再蘸, 後以添盡薑汁爲度, 高良薑等分爲細末, 臈茶調服之. 又, 治著濕頭重眩暈, 用川芎、白朮、生附子等分, 官桂、甘草減半, 每服四錢, 薑十片, 煎服.

잘게 부수어 매번 4돈을 복용한다. 물 2잔에 생강 5조각, 차싹 약간을 넣고 6푼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걸러내고 식사 전에 복용한다. 만약 기가 울체되어 막힘이 심하면, 천궁 1냥과 세신 0.5냥, 감초 3돈을 사용하여 앞서와 같이 달여 복용한다. 또 다른 처방으로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은 세신 2돈, 천궁、백지를 그 절반으로 하여 가루 내어 코 안에 넣는다. 기허(氣虛)한 사람의 두통을 치료하는 한 방법은 부자 한 개의 껍질을 벗겨 4조각으로 자른 뒤, 생강즙 한 큰 잔에 하룻밤 담갔다가 약한 불에 말린다. 이를 반복하여 생강즙을 모두 흡수시킨다. 고량강을 같은 양으로 곱게 갈아 납월(臘月, 음력 12월)에 채취한 차에 타서 복용한다. 또한, 습(濕)에 의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을 치료하려면 천궁、백출、생부자를 같은 양으로, 관계、감초를 그 절반으로 하여, 매번 4돈을 생강 10조각과 함께 달여 복용한다.



白龍丸.

백룡환

男子婦人一切風, 偏身瘡癬, 手足頑麻, 偏正頭疼, 鼻塞腦悶, 大解傷寒頭風, 又治霧露之氣或發熱.

남자와 부인의 모든 풍증을 치료한다. 온몸의 종기와 옴, 손발의 저림, 편두통과 정수리 두통, 코막힘과 머리가 답답함을 치료하고, 상한과 두풍(頭風)을 크게 치료한다. 또한 안개와 이슬의 기운으로 인해 발열이 생기는 것을 치료한다.

- 川芎、細辛、甘草、藁本、白芷 各等分.
- 천궁、세신、감초、고본、백지 각각 같은 양.

爲細末, 藥四兩, 入石膏半斤細末, 係煨了者, 水搜丸. 每兩分入丸, 薄荷茶清嚙下一丸, 食後服. 風蛀牙疼用一丸, 分作三, 乾擦後用湯漱之, 便用葱茶嚙下一二丸, 或作湯服之亦可.

위의 약재들을 곱게 가루 낸다. 약재 4냥에 석고 0.5근을 곱게 가루 내어 단련한 것을 넣고, 물로 반죽하여 환을 만든다. 매 1냥마다 환으로 만들어 박하(薄荷)차에 1알을 씹어서 삼킨다. 식후에 복용한다. 풍으로 인한 충

치로 통증이 있을 때는 1알을 쓰되, 3등분하여, 마른 상태로 문질러 바른 후 물로 양치하고, 바로 파를 달인 차에 1~2알을 씹어서 삼키거나, 혹은 탕약으로 복용해도 된다.



撥雲散.

발운산

[治眼.]

[눈을 치료한다.]

- 羌活、防風、甘草、柴胡.
- 강활、방풍、감초、시호.

等分, 水煎服之.

위의 약재들을 똑같은 양으로 나누어, 물에 달여 복용한다.

海藏法白朮湯.

해장법백출탕

- 朮 三, 防風 二, 甘草 一.
- 백출 3, 방풍 2, 감초 1 비율로 쓴다.

仲景桂枝湯、黃耆湯, 止汗者以生薑煎服.

중경계지탕(仲景桂枝湯)과 황기탕(黃耆湯)과 같이 땀을 멎게 하려면 생강으로 달여 복용한다.

神朮湯.

신술탕

- 朮 三, 防風 二, 甘草 一.
- 창출 3、방풍 2、감초 1.

同仲景麻黃湯, 發汗者以葱白、生薑煎服.

중경마황탕(仲景麻黃湯)과 같이, 땀을 내려면 총백과 생강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以此二藥, 若傷寒得傷風脈, 傷風得傷寒脈, 亦同各半例加減治法, 並見陰證論六氣加減.

만약 이 두 가지 약을 사용할 때, 상한에 상풍맥이 나타나고, 상풍에 상한 맥이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각각 반씩 사용하는 예에 따라 가감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는 《음증론(陰證論)》¹〈육기가감(六氣加減)〉에서 모두 볼 수 있다.

¹. 《음증론(陰證論)》: 왕호고(王好古)의 저서 《此事難知(차사난지)》의 일부 ↩



黃耆湯.

황기탕

[主治並見陰證論.]

[주치는 《음증론(陰證論)》¹을 함께 참고하여 보면된다.]

- 參、黃耆、白朮、白茯苓、芍藥、甘草. 一法, 加藿香、陳皮、生薑.
- 인삼、황기、백출、백복령、작약、감초. 다른 처방법으로는 곽향、진피、생강을 더한다.

¹. 《음증론(陰證論)》: 왕호고(王好古)의 저서 《此事難知(차사난지)》의
일부 ↩

黃耆甘草湯.

황기감초탕

風寒入腠理, 令人膚痛, 行走無定. [膚痛者摩之即痛, 按之即肉不痛也.]

풍한이 피부에 침입하여 피부 통증이 생기고 통증 부위가 일정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증상을 치료한다. [피부 통증이란 쓰다듬으면 아프지만, 눌러보면 근육은 아프지 않은 것이다.]

- 耆 三, 甘草 一, 生薑煎服.
- 황기 3, 감초 1. 생강과 함께 달여 복용한다.

活人防風牡蠣白朮湯.

활인방풍모려백출탕

發汗多, 頭眩汗出, 筋惕肉瞤, 此壞證也.

땀을 많이 내어서, 머리가 어지럽고 계속 땀이 나며, 근육이 떨리고 살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것은 잘못 치료하여 증세가 악화된 것이다.

- 防風、牡蠣粉、白朮 各等分.
- 방풍、모려분、백출 각각 같은 양.

爲細末, 每服二錢, 酒調下, 米飲湯亦得, 日二三服, 汗止便服小建中湯.

위의 약재들을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매번 2돈씩 복용한다. 술에 타서 마시거나 쌀로 만든 음료나 탕에 타서 마셔도 좋다. 하루에 2 - 3번 복용한다. 땀이 그치면 곧바로 소건중탕(小建中湯)을 복용한다.

十 風論

풍론

上古聖人之教下也, 謂虛邪風, 避之有時. 註云, 乘虛而入, 非也. 俗云賊風者, 牕牖之風, 亦非也, 虛邪者, 從前來者爲虛邪, 不勝己者, 亦爲虛邪也. 經云, 從風入腠理. 注云, 辟被虛邪, 亦天之虛邪也. 移精變氣云, 賊風數至, 虛邪朝夕, 內至五臟骨髓, 外傷空竅肌肉, 無問邪之虛實, 皆乘虛而入, 非乘虛而入便爲虛邪也. 乃從前來與不勝己, 皆爲虛邪也. 春甲乙則金風, 秋庚辛則炎風, 便是賊風也. 故勝己者爲實邪, 從後來者是爲實邪賊風也.

故風爲百病之始, 善行數變, 衝盪吹擊而無窮, 有太過不及勝復之各異, 故撓萬物者莫疾乎風也. 四時八節之所傷, 初焉外舍, 久見內藏, 始自皮毛, 次入經絡, 次入大絡, 次入大經, 深入骨髓而不可治.

상고시대에 황제(黃帝)가 하교(下敎)하기를, "허사풍(虛邪風)을 피하는 데는 때가 있다"고 하였다. 주석¹에서는 "허를 타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세속에서 "적풍(賊風)이란 창문 틈새의 바람이라" 하였는데, 이 역시 옳지 않다. 허사(虛邪)란 앞에서 오는 것을 허사라 하고, 자신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허사라고 한다. 《내경》에서는 "풍으로부터 주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석에서 "허약할 때 사기(邪氣)에 침

범되는 것 또한 천기(天氣)의 허사이다."라고 하였다. 《소문》의 〈이정변기(移精變氣)〉에서는 '적풍이 자주 이르고, 허사가 아침저녁으로 오니, 안으로는 오장과 골수에 이르고 밖으로는 구멍과 근육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사기(邪氣)의 허실을 따지지 않고 모두 허(虛)를 타고 들어오지만, 허를 타고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허사인 것은 아니다. 상생 방향에서 오는 기운과 자신이 극하는 약한 기운은 모두 허사이다. 봄의 갑을일에 금풍(金風)이 불거나, 가을의 경신일에 염풍(炎風)이 불면, 바로 이것이 적풍(賊風)이다. 따라서 자신을 극하는 강한 기운은 실사(實邪)이고, 상극 방향에서 역습하는 기운이 실사이자 적풍이다.

그러므로 풍은 백병의 시작이 되니, 잘 움직이고 자주 변하며, 충돌하고 흔들며 부딪치는 것이 끝이 없다. 태과·불급·승복의 변화가 각기 다르니, 만물을 뒤흔드는 것 중에 풍보다 빠른 것이 없다. 사계절과 팔절기(八節氣)에 상함을 받으면, 처음에는 밖에 머물다가 오래되면 안의 장부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피부와 털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경락으로 들어가고, 다음에는 큰 경락으로 들어가며, 다음에는 큰 경맥으로 들어가, 깊이 골수로 들어가면 치료할 수 없게 된다.

1. 주석 : 《황제내경 소문(黃帝內經素問)》 상고천진론(上古天真論) 주석



仲景小續命湯.

중경소속명탕

脉緊緩或浮緩, 主治證並見局方.

맥이 긴(緊)하면서도 완(緩)하거나, 또는 맥이 부(浮)하면서 완(緩)한 것을 치료하니, 주요 치료 증상은 모두 《太平惠民和劑局方(태평हे민화제국방)》에서 볼 수 있다.

- 麻黃、桂心、芍藥 各五兩, 甘草、生薑 各五兩, 人參、川芎、黃芩、杏仁、防風 各半兩, 防己、附子.
- 마황、계심、작약 각 5냥, 감초、생강 각 5냥, 인삼、천궁、황금、행인、방풍 각 0.5냥, 방기、부자.

氏外臺不用防己.

《外臺秘要(외대비요)》의 <최씨방(崔氏方)>에서는 방기(防己)를 사용하지 않는다.

十二味, 咬咀, 水一斗二升, 先煮麻黃三沸, 去沫, 內諸藥, 取之二升, 分爲三服, 不差, 再三兩劑, 隨經輕重發之. 脚氣服之亦差. 天陰節變, 服之以防瘡癰. 恍惚者, 加茯神、遠志. 骨節煩疼有熱者, 去附, 加白芍藥. 千金翼深師古今錄驗有白朮, 不用杏仁. 救急方無芎、杏仁三味. 延壽方無防風.

위의 12가지 약재를 잘게 부수어, 물 1.2말에 먼저 마황을 세 번 끓여 거품을 제거한 후 나머지 약재를 넣고 달여 2되가 되게 한다. 이를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낮지 않으면 두세 첩을 더 복용하되, 경맥의 경중에 따라 발한시킨다. 각기에도 복용하면 차도가 있다. 날씨가 흐리고 계절이 변할 때 복용하면 실음(瘖啞)을 예방할 수 있다. 정신이 혼미한 경우에는 복신과 원지를 추가한다. 뼈마디가 번열로 아픈 경우에는 부자를 빼고 백작약을 추가한다. 《천금익방(千金翼方)》¹, 《심사방(深師方)》², 《고금녹험방(古今錄驗方)》³에는 백출이 있고 행인은 사용하지 않는다. 구급방(救急方)에는 천궁, 행인 세 가지가 없고, 연수방(延壽方)에는 방풍이 없다.

易老法：六經加減例，四時增損同.

역로의 처방：육경에 따른 가감의 예와, 사계절에 따른 증감 방법이 같다.

1. 《천금익방(千金翼方)》：孫思邈(손사막, 581 - 682) ←

2. 《심사방(深師方)》：深師(심사), 남북조시대 ←

3. 《고금녹험방(古今錄驗方)》：甄權(견권, 540 - 643?), 수당시대 ←

麻黃續命湯.¹

마황속명탕²

1. 麻黃續命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마황속명탕 : 마황속명탕(麻黃續命湯)은 중국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는 처방명이다. 마황과 속명탕(續命湯)을 결합한 처방으로, 주로 풍한(風寒)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

桂枝續命湯.¹

계지속명탕²

¹. 桂枝續命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계지속명탕 : 계지속명탕(桂枝續命湯)은 계지를 주요 약재로 하여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한방 처방이다. 주로 중풍(中風) 초기나 열성 질환에 사용되었다. 이 처방은 《금궤요략(金匱要略)》에 처음 등장하며, 계지, 인삼, 감초 등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다. ←

白虎續命湯.¹

백호속명탕²

1. 白虎續命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백호속명탕 : 이 처방은 상한론(傷寒論)에 기록된 백호탕(白虎湯)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약재를 가미한 것이다. 백호탕의 주요 구성은 석고, 지모(知母), 갱미(粳米), 감초이다. ←

葛根續命湯.¹

갈근속명탕²

1. 葛根續命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갈근속명탕 : 갈근(葛根)은 생명력을 연장하거나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진다. ←

附子續命湯.¹

부자속명탕²

¹. 附子續命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². 부자속명탕 : 부자속명탕(附子續命湯)은 주로 양기(陽氣)를 회복시키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부자는 강력한 온열 작용을 가지고 있어 양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羌活連翹續命湯.¹

강활연교속명탕²

1. 羌活連翹續命湯. : 원본에 약재구성 및 처방내용 없음 ←

2. 강활연교속명탕 : 이 처방은 주로 강활, 연교(連翹) 등의 약재로 구성된다. 강활은 풍한을 제거하고, 연교는 열을 내리고 독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獨活續命湯.

독활속명탕

卒暴中風不省人事, 漸覺半身不遂.

갑자기 중풍에 걸려 의식을 잃고, 점차 반신불수가 되는 것을 치료한다.

- 麻黃、人參、黃芩、芍藥、芍藥、甘草、杏仁 各一兩, 防風 半兩, 桂 一兩, 防己 一兩半, 附子 半兩, 白華蛇肉、獨活、乾蝎 各三錢.
- 마황、인삼、황금、작약、천궁、감초、행인 각 1냥, 방풍 0.5냥, 계지 1냥, 방기 1.5냥, 부자 0.5냥, 백화사육、독활、건갈 각 3돈.

爲麤末, 每服三錢, 水一盞半, 生薑五片, 煎取一盞, 去滓, 熱服食前.

위의 약재를 거칠게 가루 낸어 매번 3돈을 복용한다. 물 1.5잔에 생강 5편을 넣고 1잔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뜨겁게 식전에 복용한다

白華續命湯.

백화속명탕

卒中急風, 牙關緊急, 精神昏憤.

갑자기 급한 풍에 맞아, 이를 악물고 입을 벌리지 못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증상을 치료한다.

- 白華蛇、全蝎、獨活、天麻、附子、人參、防風、白殭蠶、肉桂、白朮、藁本、赤箭、川芎、細辛、白附子、甘草、半夏、麻黃、白茯苓 各一兩.
- 백화사、전갈、독활、천마、부자、인삼、방풍、백강잠、육계、백출、고본、적전、천궁、세신、백부자、감초、반하、마황、백복령 각 1냥.

爲麤末, 每服五錢, 水一盞, 生薑五片, 煎至七分, 去滓, 稍熱服.

위의 약재를 거칠게 가루 내어, 매번 5돈을 복용한다. 물 1잔에 생강 5편을 넣고 10분의 7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약간 뜨겁게 복용한다.



大續命湯.

대속명탕

緊滑者主之.治肝癰二風, 卒然瘖瘳, 若依古法, 用大小二湯通, 治五臟偏枯賊風.

맥이 긴(緊)하고 활(滑)한 증상을 주치한다. 간(肝)의 병으로 인한 두 가지 풍증을 치료하며, 갑작스러운 언어장애를 치료한다. 만약 고법(古法)을 따른다면, 대속명탕과 소속명탕 두가지를 사용하여 오장증으로 인한 반신불수와 적풍(賊風)을 두루 치료한다.

- 麻黃 八兩, 石膏 四兩, 桂心、川芎、乾薑 各二兩, 當歸、黃芩 各一兩, 杏仁 二十枚, 竹瀝 一升, 甘草. [千金翼有.]
- 마황 8냥, 석고 4냥, 계심、천궁、건강 각 2냥, 당귀、황금 각 1냥, 행인 20개, 족력 1되, 감초. [《천금익(千金翼)》에 있다.]

九味, 咬咀, 水一斗, 先煮麻黃二沸, 去沫, 下諸藥, 煮四升, 去滓, 又下竹瀝, 煮數沸, 分作四服.能言未差, 後服小續命.舊無竹瀝, 今增如神大八風散, 復有竹瀝、葛、薑三汁法.

위의 아홉 가지 약재를 잘게 부순다. 물 1되에 먼저 마황을 넣고 두 번 끓여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재를 넣어 4되가 될 때까지 달인다. 찌꺼기를 걸러내고 다시 죽력(竹瀝)을 넣어 몇 번 더 끓인 후, 네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낮지 않았다면, 다음에 소속명탕을 복용한다. 예전에는 죽력이 없었으나, 지금은 신묘한 대팔풍산(神大八風散)에 추가되었고, 다시 죽력·갈근·생강 세 가지 즙을 추가하는 방법 있다.



小續命湯.

소속명탕

微弱者主之.治大風經藏奄忽不能言,四肢垂曳,皮肉痛痒不自覺也.

맥이 미약(微弱)한 것을 주관한다. 대풍이 경맥과 장부를 침범하여 갑자기 말할 수 없게 되고, 사지가 축 늘어지며, 피부와 살이 아프고 가렵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 獨活、麻黃 各三兩, 川芎、防風、當歸、葛根、生薑、桂心 各二兩, 茯苓 一兩, 附子、細辛、甘草 各一兩.
- 독활·마황 각 3냥, 천궁·방풍·당귀·갈근·생강·계심 각 2냥, 복령 1냥, 부자·세신·감초 각 1냥.

十二味, 咬咀, 水一斗, 煮取四升, 五服, 老小各半之. 初得病有汗去麻黃, 無汗復用之. 上氣者加吳茱萸二兩, 厚朴一兩, 乾嘔者加附子一兩, 哕者加陳皮二兩, 胸中吸吸少氣者加大棗十二枚, 心下驚悸加茯苓二兩, 熱者去生薑加葛根, 初得風未須加減, 且作三劑, 四五日後視虛實, 論之行湯針灸法.

위의 12가지 약재를 잘게 부수어 물 1되 넣고 끓여 4되를 취해 5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노인과 어린이는 각각 절반만 복용한다. 처음 병에 걸렸을 때 땀이 나면 마황을 제거하고 땀이 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한다. 기가 치

미는 경우는 오수유 2냥과 후박 1냥을 추가한다. 헛구역질을 하는 사람은 부자 1냥을 추가한다. 딸꾹질을 하는 사람은 진피 2냥을 추가한다. 자궁에 경련이 있고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대추 12개를 추가한다. 심장 하부에서 놀라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복령 2냥을 추가한다. 열이 있는 사람은 생강을 제거하고 갈근을 추가한다. 처음 풍병에 걸렸을 때는 가감할 필요가 없으며 우선 3제(劑)를 만들어 4 - 5일 후에 허실을 살펴 탕약과 침, 뜸의 방법을 논하여 시행한다.

醫壘元戎卷一

《의루원용(醫壘元戎)》 권1

해제

개요

이 책은 원대(元代) 의학가 왕호고(王好古)가 저술한 《의루원용醫壘元戎》을 국역한 것이다. 《의루원용》은 십이경(十二經)을 강령으로 삼아 상한(傷寒)과 잡병(雜病)의 경계를 타파하고 육경변증(六經辨證)의 응용 범위를 확대한 종합 의서로,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 중 역수학파(易水學派)의 학술 성과를 집대성한 대표 저작이다.

저자

왕호고(王好古, 1200-1264)는 자(字)가 진지(進之) 또는 신지(信之)이고, 호(號)는 해장(海藏)이며, 조주(趙州, 현 하북성 조현) 사람이다. 유학을 공부하다가 의학에 뜻을 두어 이고(李杲, 李東垣)의 문하에서도 수학하였다. 음증학설(陰證學說)에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저술은 20여 종에 달한다. 《의루원용醫壘元戎》 12권, 《음증략례陰證略例》 1권, 《탕액본초湯液本草》 3권, 《차사난지此事難知》 2 권 등이 대표작이다.

서지사항 및 판본

《의루원용》은 왕호고가 1291년에 처음 편찬하였으나, 후에 원고가 분실되어 기억을 통해 내용의 10분의 7, 8을 복원하여 1297년에 복간하였다. 원대 판본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후대에 1권본으로 축약되어 《제생발수濟生拔粹》, 《동원십서東垣十書》, 《의통정맥醫統正脈》 등의 총서에 수록되었다. 현존하는 주요 판본으로는 명각청인(明刻淸印) 《동원십서東垣十書》본(미국 국회도서관 소장)과 《흙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문연각본(文淵閣本) 등이 있다. 이 국역본은 《흙정사고전서》소재 《의루원용》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판독이 불명확한 글자는 《중국고의적정리총서中國古醫籍整理叢書》 등을 참조하여 교감하였다.

구성

전체 12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십이경(十二經)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먼저 상한(傷寒)을 다루고, 이어서 잡병(雜病)을 서술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권1에서는 상한지원(傷寒之源)、내상론(內傷論)、불가한불가토불가하(不可汗不可吐不可下)、태양증(太陽證)을 다루었고 권2에서는 태양증(太陽證)을 계속 설명하면서 처방례(處方例), 증후론(證候論), 치법(治法)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권3과 권4는 양명증(陽明證)을 다루는데, 권3에서는 양명증、발황

(發黃)·박하례(薄荷例)·선복대자석례(旋覆代赭石例)를, 권4에서는 양명증·소변불통례(小便不通例)를 설명하였다. 권5와 권6은 소양증(少陽證), 권7과 권8은 태음증(太陰證), 권9는 소음증(少陰證), 권10과 권11은厥음증(厥陰證)을 각각 다루고 있으며, 권12에는 각종 잡병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의루원용》은 장중경(張仲景)의 《상한론(傷寒論)》 육경분증(六經分證) 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삼으면서도, 각 경(經)마다 상한과 잡병을 함께 다루어 육경변증(六經辨證)의 원칙을 잡병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 증에 대해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의 처방을 중심으로 하되, 장원소(張元素)·이동원(李東垣) 등 역수학파(易水學派)의 처방과 자신의 검방(驗方)을 더하여 처방의 가감변화(加減變化)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의의

《의루원용》은 장중경(張仲景)의 학설을 근간으로 하되, 장원소·이동원(李東垣) 등의 치법을 참고하여 저술되었다. 이 책은 상한과 잡병의 구분을 없애고, 육경변증의 원칙을 잡병 치료에 적용하는 한편 잡병방약(雜病方藥)을 육경제증(六經諸證)에 활용함으로써 《상한론》 육경분증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처방의 가감변화를 제시하여 방제(方劑) 활용의 융통성을 높였으며,

이는 변증논치(辨證論治)의 유연한 접근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원시대 의학의 영향으로 이 책이 유통되었으며, 조선시대 의서 편찬과 임상 실천에 참고서로 활용되었다.

※ 참고자료

《欽定四庫全書·子部五·醫家類·醫壘元戎》文淵閣本, 臺灣商務印書館

《中國古醫籍整理叢書》《醫壘元戎》, 中醫古籍出版社

《中醫古籍珍本集成》(醫論卷)《醫壘元戎》(해제), 湖南科學技術出版社,

2014 王洪圖 主編, 《中醫歷代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2000

《中華醫書集成》(第二十五冊 醫論類), 中醫古籍出版社, 1999

《東洋醫學大辭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일러두기

판본 및 구성

판본 및 구성

- 이 책은 원대(元代) 왕호고(王好古)가 저술한 《의루원용醫壘元戎》 12권 본 가운데 권1을 국역한 것이다.
- 《의루원용》의 저본은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소재 《의루원용》 12권본을 사용하였으며, 판독이 불명확한 글자는 《중국고의적정리총서中國古醫籍整理叢書》 등을 참조하여 교감하였다.

표기법

- 처방의 구성은 가독성을 위하여 형태를 약간 변형하였으나 글자의 차이는 없다. 포제법은 괄호로 묶었고, 나열은 '、'으로 구분했으며, 용량은 공백으로 구분하였다.
-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는 兩/냥, 錢/돈, 分/푼, 寸/촌, 字/자 등으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 인명이 아닌 龜의 독음은 구갑(龜甲)과 같이 '구'로 표기하였다.
- 두음법칙에 따라 尿, 衄, 泥 등이 첫음절인 경우에는 '요', '육', '이' 등으로 처리하였다.
- 목단(모란), 목과(모과), 앵도(앵두) 등 현대 한글과 발음이 다른 경우는 한자의 독음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 의미가 동일한 이체자나 이형자는 가능한 현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자로 수정하였다.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 기호 및 표기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서적의 작은 글씨
 - 【】: 음각
 - {} : 양각
 - 임의 제목 : 원서에는 없으나 내용 이해를 위해 삽입한 제목

출판사항

서 명 : 국역 의루원용 권1 / 醫壘元戎 卷一

원저자 : 왕호고 王好古

국 역 : 구현희

해 제 : 구현희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5년 11월 10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 수집한 이는 오준호, 이정현이고, 정본화된 원문 텍스트를 만들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5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
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
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 ISBN 978-89-5970-604-4 (PDF)
- ISBN 978-89-5970-603-7 (세트)